

30일 Market Index			
↓ 코스피	6788.88	↑ 코스닥	838.41
	(-123.49)		(+0.76)
↑ 금리 (미국 9년)	3.788	↑ 환율 (한-달러)	1375.40
	(+0.033)		(+2.90)

D램 공세에 관세 확대... 삼성·SK ‘고군분투’

〈中〉

〈美〉

中 창신메모리 ‘LPDDR6’ 양산
상반기 매출 29조 전년비 874% ↑
美 반도체 관세, 완제품까지 확대
현지생산 확대 압박 방안 검토중

최근 유례없는 성장세를 보여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반도체 핵심기업의 최신 D램 양산과 미국의 무역장벽 확대 기조 등 새로운 난관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는 상반기 매출이 9배 가까이 급증한 데 이어 최신 모바일 D램 양산까지 시작했다. 여기에 미국은 반도체 관세를 서버와 노트북 등 완제품으로 확대하고 현지생산 규모에 따라 혜택을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CXMT 매출 9배 급증...최신 D램 양산까지

30일 업계에 따르면 CXMT는 전일 LPDDR6(저전력 D램) 양산에 들어갔다. 샤오미는 오는 9월 출시하는 폴더블 스마트폰 ‘샤오미 18 폴드’에 CXMT의 LPDDR6를 탑재한다고 밝혔다. LPDDR6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에 쓰이는 최신 저전력 D램이다. 온디바이스 AI 확산에 맞춰 데이터 처리 속도와 전력 효율을 높인 제품이다.



네팔 대홍수 희생자 추모 기도

30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 서울네팔법당에서 네팔 대홍수 희생자 유족 및 네팔 이주민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 /뉴시스

CXMT의 성장세는 실적에서도 나타난다. 회사가 공개한 상반기 실적에 따르면 매출은 1503억1000만원(약 29조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874% 급증했다. 순이익은 776억500만원(약 15조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지난달 상하이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뒤 이달에는 텐센트를 제치고 중국 시가총액 1위에 올랐다.

CXMT의 추격은 범용D램을 넘어 최신

모바일 D램으로 확대되고 있다. 다만 글로벌 메모리 시장을 주도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LPDDR6 개발에서 앞서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2나노급 LPDDR6를 개발하고 올해 초 공개했으며 SK하이닉스도 지난 3월 10나노급 6세대(1c) 공정을 적용한 LPDDR6 개발을 완료했다.

기술 격차도 남아 있다. CXMT는 LPDDR6의 생산 공정과 수율을 공개하

지 않았으며 HBM(고대역폭메모리) 등 AI용 고부가 메모리에서는 국내 업체들이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CXMT가 LPDDR6 양산에 이어 샤오미까지 고객사로 확보하면서 최신 D램 시장에서도 추격 속도를 높이고 있다.

〈2면에 계속〉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metro

“직주근접 유리... 입지, 압구정 못지않아”

부동산 현장 르포

1만3000가구 공급 구상 탄천물재생센터 가보니

서울 지하철 3호선 대청역을 나와마루공원을 따라 걸으면 탄천물재생센터가 나온다. 주변에는 개포·일원동 주거지를 비롯해 학교와 공원 등이 들어서 있다. 탄천 건너편으로는 송파구 아파트 단지와 롯데월드타워도 시야에 들어왔다.

정부와 서울시가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놓고 경쟁선을 달리는 가운데 ‘탄천물재생센터’ 활용안이 새 협상 카드로 떠올랐다. 서울시가 최대 1만3000가구 공급 구상을 제시하고 국토교통부가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지만 이전 장소와 공급 시점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6일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의 만남에서 센터를 이전하고 이곳에 가칭 ‘용납권 청년 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센터 부지는 약 39만3000㎡ 규모다. 서울시는 부지 절반가량에 청년주택을 배치하면 최소 1만가구에서 최대 1만3000



서울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의 하수처리시설 뒤로 송파구 롯데월드타워가 보인다. /성채리 수습기자

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인근 동부도로사업소와 세텍(SETEC) 부지까지 연계하는 복합개발 구상이다.

◆강남 직주근접 갖춘 39만㎡

입지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대청역과 학여울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수서역도 가깝다. 강남 업무지구와 잠실 등으로 이동하기 쉽고 도로와 생활 기반시설도 갖춰져 있다.

송승헌 도시와경제 대표는 “용산은 앞으로 기반시설이 갖춰질 곳이라면 탄천 일대는 이미 교통과 생활 기반이 마련된 상태”라며 “강남권 일지리와 주택 수요를 고려하면 직주근접 측면에서도 유리하

다”고 평가했다. 이어 “공원으로 쓰이는 용산보다 기피시설에 가까운 물재생센터를 주거·산업단지로 바꾸는 편이 토지 활용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일원동의 한 부동산공인중개업소 관계자도 “하수처리장과 소각장 등 기피시설이 빠진다면 입지는 압구정 못지않다”고 말했다.

탄천 카드가 급부상한 배경에는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있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지난 20일과 26일 두 차례 만나 서울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했지만 용산공원 일부를 활용하는 문제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2034년 이전·지하화 계획이지만...

정부는 서울시가 제안한 탄천 부지를 적극 검토한다고 밝혔지만 양측이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탄천물재생센터는 하루 최대 90만㎡의 하수를 처리하는 서울 동남권의 핵심 기반시설이다. 이전을 결정하더라도 시설을 옮길 부지를 확보하고 해당 지역 주민과 자치단체를 설득해야 한다.

〈8면에 계속〉

/성채리 수습기자 cr56@



metro

m-커버스토리

메가특구법·800조+ α 예산 ‘격돌’

여야, 내일 정기국회 개회

여야가 오는 9월1일부터 100일 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메가특구특별법(메가특구법), 부동산공급 확대 법안 등 쟁점 법안, ‘800조원 + α (알파)’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보유에서 실거주 중심으로 과세 체계를 변경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 등을 놓고 격돌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3면〉 정기국회는 국정감사, 예산안 심의 및 확정, 법안 처리, 대정부질문 및 연설 등 국회의 한 해 농사를 결정 짓는 중요한 시간이다. 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를 이재명 정부 성공의 ‘골든 타임’이라고 보고 정부의 역점 사업을 뒷받침할 쟁점 법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최고위원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정기국회가 입법 전쟁이 될 것”이라며 “전쟁에 임하는 장수의 마음으로 오직 국민, 오직 민생을 위해 전진 또 전진 하겠다. 국민의 성공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자 민주당의 성공이다. 대한민국 대도약의 골든타임을 단 하루도 허비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을 ‘부동산 폭정’과 민생안보 파탄’이라고 표현하며 이를 반드시 저지자는 목표 아래 단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연설회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대한민국의 정통보수 제1야당으로서,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파괴하고 해체하는 이재명 정권이 초래한 민생·안보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장기국회에서 총 800조원+ α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은 정치권의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 총력지원 ▲미래 성장 엔진 확충 ▲청년 성장 단계별 종합지원 ▲K-지형 양극화 대응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조성 등 5대 중점 분야 중심으로 정부사업을 확충해 뒷받침 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 ▲李 부동산 투기세력 겨냥...“내년 금리 3.5% 유의해야 할 것”
- ▲野, 李정부 개각에 “李 공소취소 전격전 돌입한 것...대단히 실망”



- ▲나경원 “ETF 수혜 기업에 이찬진 주 재직” 이 의원·이찬진 사퇴 촉구
- ▲윤상현 “국힘, 부정선거론 나락 빠져있어...공개 대토론회 개최하자”

/사진 뉴시스

- ▲이진숙 ‘광주사태는 거의 폭동’ 영상 공유...與 “끝까지 책임 물을 것”
- ▲“친한” 김종혁, “朴 전 대통령, 통합 말할 자격 충분하지 않아”

제약·바이오업계, 비만치료제 등 'K-CDMO' 경쟁력 다각화

삼성바이오로직스

폴리펩타이드 그룹 인수 등 투자
셀트리온 COMD 사업구상 본격화
유한화학 글로벌 빅파마 수주 확대

국내 바이오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들이 경쟁력을 다각화하고 있다. 생산 규모 확보에서 비만치료제, 항체·약물접합체(ADC) 등의 포트폴리오 구축으로 역량을 강화한다. 급변하는 글로벌 빅파마들의 신약 파이프라인에 발맞춰 다양한 차세대 의약품을 신속히 생산하는 데 중점을 둔다.

30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8일 이사회를 열고 총 3조9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조달 자금 중 대부분인 2조7062억원은 글로벌 펩타이드 CDMO 기업인 '폴리펩타이드 그룹' 인수 자금으로 쓰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안에 인수를 완료해 항체, 메신저 리보핵산(mRN



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 전경.

/삼성바이오로직스

A), 항체·약물접합체(ADC)에 GLP-1 펩타이드 영역까지 아우른다는 방침이다.

존 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는 "폴리펩타이드 그룹 인수, 제2 바이오캠퍼스 증설 등을 통해 생산능력, 포트폴리오, 지리적 거점 등 3대 성장 축을 바탕으로 도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포트폴리오 확장 추진은 국내 K바이오 산업 전반에서 확산하는 모습이다.

셀트리온도 CDMO 사업 본격화를 구상하고 있다. 2024년 12월 100% 자회사 셀트리온바이오솔루션스를 설립하고 오는 2031년 매출 3조원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며 CDMO 전면 등판을 선언했다.

올해 3월에는 송도 4·5공장 및 미국 브랜치버그 공장에 1조2000억원 투자 결정하기도 했다. 국내의 증설이 완료되면 셀트리온의 DS 생산역량은 기존 31만 6000리터에서 57만 1000리터로 커진다.

또 생산 내재화로 원가율을 극대화하는 등 차별화 전략을 기동할 예정이다. 실제로 셀트리온은 올해 상반기 기존 CMO 사업을 통해 1468억원을 기록하는 등 트랙레코드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

정통 제약사들은 고부가가치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유한양행 자회사 유한화학은 글로벌 빅파마 대상 원료의약품(API) CDMO 사업을 확장한다. 올해 1분기 831억원, 2분기 912억원 등의 실적 증가세를 유지했다. 올해 5월 미국 브릿지바이오파마, 길리어드 사이언스 등과 잇따라 대규모 공급 계약을 추가하는 등 확보된 물량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고성장을 이어간다.

동아쏘시오그룹의 에스티팜은 차세대 RNA 치료제 원료인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분야를 선점했다. 에스티팜의 올해 상반기 누적 연결 매출은 1755억원이다. 1분기 670억원, 2분기 1085억원 등으로 핵심 성장동력에 시동을 걸었다. /이철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metro

>> 1면 'D램 공세에 관세...'서 계속

美, 완제품 등 관세 검토 D램 생산라인 변수 부상

◆美 통상압박 수위 높아

이처럼 중국과의 기술 경쟁이 거세지는 가운데 미국의 통상 압박도 커지고 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일부 반도체에 적용하던 관세를 데이터센터용 서버와 노트북, 게임 콘솔 등 반도체가 들어간 완제품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세 대상 확대와 함께 미국 내 생산을 늘리도록 압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지난 27일 하워드 러트니 미 상무장관이 현지 반도체 생산 규모에 비해 무관세 수입 물량을 배정하는 방식을 지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미국 현지 생산 압박도 커질 전망이다. 양사 모두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만 D램 전공정 생산라인은 국내에 집중돼 있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에 370억달러(약 51조원)를 투자하고 있지만 테일러 공장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중심이다. 미국 내 D램 생산라인은 아직 없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7일 인디애나주에서 40억달러(약 5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HBM 생산거점 착공식을 열었다. 2029년 하반기부터 차세대 HBM을 생산할 예정이지만 국내에서 만든 D램 웨이퍼(반도체 원판)를 미국에서 패키징하는 후공정 시설이다.

이에 따라 미국이 현지 생산 규모를 관세 혜택과 연계할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D램 생산시설 추가 투자 여부도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韓, 지난해 근로자 1인당 평균임금 5391만5741원

구매력 기준 연 6만1259달러
1위 아이슬란드... 10만605달러

우리나라가 '근로자 임금' 부문 주요국 비교에서 10년 사이 3계단 뛴 18위에 올랐다. 2010년대 중반 이후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뉴질랜드 등을 차례로 제쳤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넘어서진 못하고 있다.

30일 OECD 홈페이지에 게시된 한국의 작년 12개월치 근로자 1인당 평균임금은 5391만5741원이었다. OECD는 34개

회원국의 각 통화단위 및 액수를 그대로 표기한 뒤 이를 다시 미 달러화로 변환해 비교했다. 특히 단순 변환이 아닌 각국 소비재물가를 반영한 '구매력평가지수'(ppp)로 순위를 매겼다.

지난해 한국은 구매력 기준 연 6만1259달러로 18위를 차지했다. 명목임금이 아닌 ppp 기준이기 때문에 이날 기준 원-달러 환율 환산치(3만9055달러)와는 차이가 크게 난다. 아꼈든 OECD 평균인 6만4809달러에 근접한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2025년도에도 격차를 크게 줄이진

못했다. 다만 지난 10년간 서방 등 주요 선진국의 임금 수준을 따라잡았다. 2015년 일본에 처음으로 앞선 데 이어 2025년 까지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뉴질랜드 등을 따돌렸다.

일본(5만183달러)은 25위까지 처졌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이탈리아(5만3864달러·24위), 스페인(5만7779달러·22위), 프랑스(6만483달러·20위), 뉴질랜드(6만896달러·19위) 등이 자리했다.

이 밖에, OECD 평균 내외인 6만 달러대를 기록한 나라는 스웨덴(6만1443달러

·17위)과 핀란드(6만3053달러·16위), 슬로베니아(6만3376달러·15위), 영국(6만6299달러·14위), 캐나다(6만7901달러·13위) 등이다.

1위는 전체 OECD 회원국 중 역대 처음으로 10만 달러를 넘긴 아이슬란드(10만605달러)였다. 이어 룩셈부르크(9만8530달러), 스위스(9만2285달러), 미국(8만6977달러), 네덜란드(8만136달러)가 2~5위에 각각 올랐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metro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우리사장님들 모두~ 잘됐으면 좋겠다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복리 이자
목돈 마련**

**신속한
비대면 대출**

**공제금
압류 금지**

홍보대사
김나희

홍보대사
탁재훈

KBIZ 중소기업중앙회 가입문의 **1666-9988**

* 중소기업중앙회 심의필 제26-025호(2026.03.06 ~ 2027.03.01) *취급은행: 시중은행, 지방은행, 농협·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용산공원 일부 부지에 주택활용 검토… 재개발·재건축 탄력

m-커버스토리

부동산 공급 100일 입법전

용산공원특별법 정거국회 처리 관심
녹지 기능 상실 부지 주택 공급 검토
정비사업 속도 높일 도정부 추진
공공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완화
500세대 이하 인허가 권한 이양 검토

100일 간의 입법·예산 전쟁이 9월 1일부터 시작된다. 정거국회는 9월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9월 7~8일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로 집권여당과 제1야당의 정거국회 전략을 홍보한다.

여야 의원들은 9월 9~11일, 14일의 나흘에 걸쳐 정치·외교·통일·안보·경제·사회·교육·문화 각 분야별로 중앙부처 수장에게 정부 주요 사업 성과와 진행 상황 등에 대해 질문하는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정거국회의 하이라이트인 국정감사는 10월6일에 시작해 10월27일까지 3주간의 일정으로 치러진다.

◆메가특구특별법·부동산 공급 확대 법안 합의 처리 관심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취임 후 이재명 정부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민주당과, 부동산·증시 등 이재명 정부의 약한 고리를 집중 공략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메가특구특별법과 용산공원특별법 등을 합의 처리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 관계자는 정거국회 대비 비공개 의원 워크숍에서 메가 프로젝트 관련 중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시스

점 추진 입법으로 ▲전력과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전기사업법·수도법·물관리기본법 ▲인프라 조성을 위한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건축법 ▲기업 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메가특구특별법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정거국회 처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역점 사업인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뒷받침하는 메가특구특별법은 반도체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의 후속조치로, 권역별 전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신설되는 특구에 대해 재정·금융·세제·규제·기술·인재·산업 인프라 등 7개 분야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8월 입사국회에서 여야의 최대 현안이었던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 등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후속조치 법안들도 정거국회

때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여당이 청년 지지 회복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 부동산 공급 확대를 지상과제로 설정한 가운데, 용산공원 부지 중 녹지 기능을 상실한 곳에는 주택 공급을 검토해야 한다는 민주당과, 미래 세대를 위해 서

울에 녹지를 남겨둬야 한다는 서울시와 국민의힘이 맞서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방안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정비사업의 속도를 제고하고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공공재개발사업 공공재건축사업의 경우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인 도시재정비특별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선 서울시장에 가진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인 구청장에게 이양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간이 주도하는 정비사업을 통해야만 실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신속한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다면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중심인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미래대응기금 두고 “재정의 저수지” VS “편법의 저수지”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 수정안이 이번주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를 두고 여야가 격론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반도체 초과 세수로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여야의 입장 차는 팽배하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새로 만들어 추가 세수를 적립하고, 이를 전략적 투자와 재정안정화를 위한 플랫폼으로 쓰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기금은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서 쓰인다.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이 ‘재정의 저수지’가 아니라 ‘편법 저수지’라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배준영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야당 간사는 “이 기금은 편법 저수지”의 성격을 띤 제2의 일반회계”라며 “이 기금은 예비비보다도 훨씬 임의성이 높다. 예비비보다 사용 범위가 넓고, 여러 해 쓸 수 있고, 기금 운용계획 변경까지 가능한 슈퍼 예비비 같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metro

위시, 신현송 논문 들어 ‘쏠림’ 경고 한은 21개 점으로 금리 전망 폭 넓혀

잭슨홀서 과도한 정책 신호 위험 지적
2002년 ‘공공 정보 사회적 가치’ 인용
금통위원 7명 각각 금리 전망 3개 제시
3.25% 중간값도 추가인상 약속 아나

케빈 위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중앙은행의 말이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거울의 방’ 위험을 경고하면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24년 전 공동 집필한 논문을 인용했다. 한은이 공개한 6개월 뒤 조건부 금리전망의 중간값은 연 3.25%지만, 이를 한 차례 추가인상의 약속이나 최종금리로 받아들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도 위시의 문제 제기와 맞닿는다.

위시는 미래 금리 경로에 관한 신호를 줄이려 하고 한은은 한 명당 세 점을 찍어 전망의 불확실성까지 공개한다. 방식은 다르지만 중앙은행 전망이 확정된 약속처럼 받아들여지는 위험을 낮추려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분모가 있다.

◆신현송 논문 꺼낸 위시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위시 의장은 지난 28일 잭슨홀 경제정책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도입된 포워드 가이드가 “너무 오래 지속됐다”고 평가했다. 평생시에는 미래 정책에 관한 소통을 제한적으로 운용해야 하며, 지나친 공개와 금리에 대한 의존이 시장·기업·가계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정책결정자의

운신 폭도 좁힐 수 있다는 판단이다.

위시 의장이 특히 경계한 것은 시장과 중앙은행이 서로를 따라가는 ‘거울의 방’이다. 시장이 연준의 발언에 의존해 자산 가격을 형성하고 연준이 다시 그 가격을 경제 신호로 활용하면 최초의 정보가 왜곡되거나 증폭될 수 있다. 위시는 이 경우 새로운 상황 변화에 눈이 멀고 정책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위시는 이 대목의 각주에서 스티븐 모리스 프린스턴대 교수와 신 총재가 2002년 미국경제리뷰(AER)에 발표한 ‘공공 정보의 사회적 가치’를 인용했다. 경제주체들이 자체 정보도 가진 상황에서는 중앙은행의 공개 신호가 정확해서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따를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과도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내용이다. 공개 신호가 틀리면 시장 전체가 같은 방향으로 잘못 움직일 위험도 커진다.

◆한은, 21개 점의 의미

한은은 2022년부터 운영해온 금통위원의 조건부 금리전망을 올해 2월 ‘6개월 뒤 위원당 세 점’ 방식으로 개편했다. 총재를 포함한 금통위원 7명이 세 점씩 제시해 총 21개 점을 만든다. 한 위원이 세 점을 같은 금리에 찍거나 여러 금리로 나눠 찍을 수 있어 위원 간 견해 차이뿐 아니라 각위원이 판단하는 전망의 확률분포도 드러난다.

/김주형 기자 gh471@



metro



경북 영양군 수비면 죽파리 405
영양 자작나무숲

이 광고는
100% 수작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묵묵히 변함없이”

많은 부사들이 있지만
더 매력적인 표현들도 있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부사는 이것

빛나지 않아서
빛나는 부사

시련이 닥쳐도
변화의 태풍이 불어도
좋은 날이 와도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도
묵묵히 변함없이

그렇게 하루 하루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묵묵히 변함없이

누군가 우리의 필살기를 묻는다면
우리가 답하게 될 그 부사

“묵묵히 변함없이”

SK hynix



李, 경제라인 쇄신·정치인 전진배치… 국정 2년차 승부수

6개 부처 장관·참모진 인사

경제·부동산 라인, 전문 관료 출신
정치인 기용으로 정책 추진 속도
야당 현역의원 용혜인 ‘깜짝 발탁’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기획부 장관을 비롯해 6개 부처 장관과 청와대 공석 참모진을 채우는 중폭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경제정책 라인 교체로 정책 집행의 엄밀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정치인 발탁을 통해 부처 장악력과 정책 실행력을 높이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여당 출신이 아닌 야당의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지명한 점도 ‘깜짝 발탁’이라는 평가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이 대통령이 ▲재정경제부 장관에 이형일 재경부 1차관 ▲국토교통부 장관에 홍지선 현 국

6개 부처 장관 후보



이형일
경제부총리·재정경제부 장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신철
국방부 장관



김승원
법무부 장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토부 2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방부 장관에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법무부 장관에 김승원 민주당 의원 ▲성평등가족부 장관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취임 2년차에 단행된 이번 중폭 개각은 경제정책 라인 교체와 정치인 출신이 많다는 점이 눈에 띈다. 집권 2년차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고 정책의 집

행 속도를 높이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이형일 재경부 장관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차관보 등 경제·금융 분야 요직을 두루 거쳤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도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등 정책 설계부터 집행까지 현장 경험이 풍부하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손발을 맞춘 이력도 있다.

부동산 정책 주무부처인 재경부와 국토부 수장이 동시에 전문 관료 출신으로 교

체된 만큼, 향후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실행 과정에서 정밀하게 조정·보완할 사항을 살필 수 있을 것이란 평가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는 이소영 민주당 의원, 법무부 장관으로는 김승원 민주당 의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명됐다. 모두 현역 의원 출신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결과를 반영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특히 김승원 후보자는 판사 출신의 재선 의원으로 현재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에서 윤건영 의원과 함께 공동대표이기도 하다.

재선 의원인 이소영 후보자는 기후에너지 전문가로,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스타트업 지원 및 소상공인 보호 입법을 중점적으로 살핀 점을 고려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1990년생인 용혜인 후보자는 ‘깜짝 발탁’이라는 평가다. 여당이 아닌 현역 국회의원이 각료로 지명된 것은 DJP(김대중-김종필)연합’으로 연립정부를 구성했던 1998년 이후 처음이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는 주(駐) 사우디아라비아 특명전권대사로 합참 작전본부장 등 요직을 거친 4성 장군 출신인 강신

청와대 공석 참모진 후보



이혜민
청 A미래기획수석비서관



이원주
청 메가프로젝트 보좌관



하정우
국가안전기획위원회 부위원장



김경수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

철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명했다. 강 후보자는 육사 46기 출신으로 국가안보실 안보국방전략비서관,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부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 핵심 요직을 거친 ‘육사 성골’이라는 평가다.

청와대 참모진 개편은 쇄신보다는 보강에 중점을 뒀다. 청와대 A미래기획수석으로 발탁된 이혜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구글 엔지니어 출신으로, AI 기본법을 대표발의하는 등 전문성을 고려했다. 신설되는 청와대 메가프로젝트 보좌관(가칭)으로는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이 내정됐다. 국가안전기획(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하정우 전 A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임명됐다.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에는 김경수 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위촉됐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1965

SINCE

NH농협생명

60년을 넘어 한결같이
고객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밝혀 온 NH농협생명.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모두의 인생을 비추겠습니다.

NH농협생명이
든든한 빛이 되겠습니다

NH농협생명

대망같이

MB 만나는 국힘, ‘단합’ 행보

정점식 대표, 오늘 이 전 대통령 예방
당내 신뢰·화합 메시지에 관심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는다. 지도부의 박 전 대통령 예방이 연설회 참석으로 이어졌던 만큼, 이 전 대통령 예방 이후에도 추가적인 접점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는 31일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에서 이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지난 1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은 지 12일 만이다. 당 지도부는 이 자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유세를 지원한 데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그동안 국민의힘에 화합과 외연 확장을 주문해 왔다. 그는 지난 1월 자신을 예방한 장동혁 대표에게 “당은 항상 국민을 보고 정치해야 한다. 지금은 단합할 때”라고 전한 바 있다.

최근 국민의힘은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과 비(非)당권파 의원들에 대한 장계 등을 둘러싸고 내용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 비춰볼 때 이 전 대통령은 이번 만남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국민의힘 연설회에서도 ‘신뢰와 단결’이 주요 화제로 떠올랐다. 장 대표는 지난 28일 고양시 소노캄 고양에서 열린 연설회를 마치면서 “정당과 정치는 국민에게 신뢰를 얻어야 한다. 그 신뢰를 얻는 방법은 진정성”이라며 “국민의 삶을 더 잘 챙기는 정당을 만드는 것이 개혁과 혁신이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난 27일 연설회에 참석해 의원들에게 국민과의 신뢰 회복과 당의 화합을 강조했다. 그는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다. 국민이 바라고 걱정하는 것을 진정성 있게 해결해 나가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국민의 힘 내부에는 과거 친박(친박근혜)계와 친이(친이명박)계로 나뉘었던 흔적이 남아 있다”며 “현재 당권파에는 친박계 성격을 띠지만 친이계 쪽은 강성 보수는 아닌 만큼 당권파와 비당권파를 모두 아우르려는 행보로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지금 사실 국민의힘 자신의 힘으로는 당내 상황을 수습하기 힘들다는 또 다른 표현일 수도 있다”고도 말했다.

/박경수 수습기자 gws0325@

우리 마음속
첫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



「 우리를 위한 든든한 포용금융 안전망 우리포용금융 플랫폼 36.5도 사용설명서 」



“우리포용금융 플랫폼이 무엇인가요?”

당신의 마음을 제일 잘 헤아리는 우리

불안한 마음에 더해 여러번, 여러곳에서
알아봐야 했던 번거로움. 우리가 제일 잘 알기에

금융 소외계층의 **이자 부담을 낮추고,**
금융지원이 필요할 때 다양한 포용금융상품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해요”

당신에게 맞춤 금융을 제공하는 우리

소득 증빙이 어려운 고객도 **한번의 조회**로
우리금융그룹(은행,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제휴사 등 **상품 추천에서 비교까지**



“어떻게 이용하죠?”

36.5°C의 온기로 더 쉽게 만나는 우리

우리WON뱅킹 앱에서 바로 신청하고
AI 챗봇으로 부담 없이 상담해보세요



모두가 꿈 앞에서 소외되지 않는 세상
우리가 꿈꾸는 금융 세상
우리은행이 앞장서겠습니다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포용금융
36.5도
바로가기

포용금융 관련 문의처 : 고객센터(우리은행 1588-5000, 우리카드 1588-9955, 우리금융캐피탈 1544-8600, 우리금융저축은행 1599-0038. 평일 09:00~18:00)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6-4838(2026.05.28~2027.05.26)

우리나라 우리은행

국책은행,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산은, 수년째 2%대 정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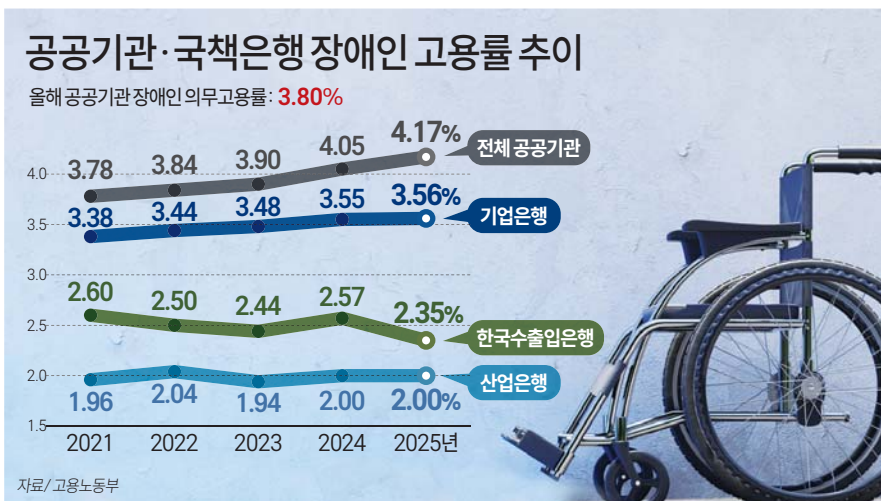
5년째 의무고용률 3.8% 밑돌아
산은·수은, 수년째 2% 안팎 정체
기업은행, 작년 3.56% 기준 이하

전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 의무고용률을 넘어 4%대에 진입했지만 KDB산업은행·IBK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3곳은 최근 5년간 단 한 차례도 의무고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부담금을 납부하는 사업체가 적지 않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하면서 국책은행의 장애인 고용 책임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30일 고용노동부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4.17%로 집계됐다. 공공부문 법정 의무고용률인 3.8%를 0.37%포인트(p) 웃도는 수준이다.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은 2021년 3.78%에서 2022년 3.84%, 2023년 3.90%,



2024년 4.05%, 지난해 4.17%로 꾸준히 상승했다. 2022년 이후에는 매년 법정의 의무고용률을 넘어섰다.

반면 국책은행 3곳은 같은 기간 모두 법정 기준에 미달했다.

지난해 산업은행의 장애인 고용률은 2.00%로 공공기관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법정 의무고용 인원은 125명이었지만 실제 고용 인원은 66명에 그쳐 기준 인원의 약 52%를 채우는 데 그쳤다.

산업은행의 장애인 고용률은 2022년 2.

04%에서 2023년 1.94%로 떨어진 뒤 2024년과 지난해 2.00%에 머물렀다. 수년째 2% 안팎에서 정체된 셈이다.

한국수출입은행 역시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이 2.35%로 전년 2.57%보다 오히려 낮아졌다.

기업은행은 3곳 가운데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은 3.56%로 2021년 3.38% 이후 매년 개선되고 있지만 법정 기준인 3.8%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했다.

장애인 고용의무제는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공·민간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공공부문 3.8%, 민간부문 3.1%다.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면 미달 인원과 고용 수준에 따라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고용률이 낮을수록 1인당 부담금 단가가 높아지는 구조다.

문제는 상당수 사업체가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보다 부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 사업체 3만3452곳 가운데 의무고용 이행률은 43.3%에 그쳤다.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부담금이 발생한 사업체만 8361곳, 부담금 규모는 총 8898억원에 달했다.

10년 이상 연속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명단공표 대상에 오른 사업체도 51곳에 달했다.

정부 역시 현행 부담금 제도가 장애인

고용을 충분히 유도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 형평성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9월 노사와 장애인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고용부담금 제도 개선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권에서는 공공기관 전체의 장애인 고용 수준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국책은행 역시 부담금 납부에 의존하기보다 장애인이 실제 근무할 수 있는 직무를 발굴하고 별도 채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책은행은 수익성만을 추구하는 민간 금융회사와 달리 정책 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함께 수행해야 한다”며 “매년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의무를 대신하기보다는 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채용으로 연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

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metro

반도체 수출 호조, 물가상승 압력 키운다

한은, 수요주도 물가와 근원물가
상반기 고유가 물가상승 이끈 반면
하반기 수요측 물가압력 확대 예상
근원물가 5%대 중후반 이어갈 듯

반도체 수출 호조가 내수로 번지면서 향후 물가를 밀어 올리는 힘이 공급 충격에서 수요 회복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근원물가 상승률이 2%대 중반을 넘어설 경우 여행·숙박·외식 등 개인 서비스를 중심으로 가격 인상이 다른 품목까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는 경고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요주도 물가압력이 근원물가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상반기 물가 상승을 이끈 고유가 등 공급측 압력이 점차 완화되는 반면 반도체 수출 호조와 교역조건 개선으로 가계·기업의 실질구매력이 커지면서 수요측 물가압력이 확대될 수 있다. 향후 근원물가가 2%대 중후반의 높은 흐름세를 상당 기간 이어갈 가능성도 제기됐다.

◆ **근원물가 2.5% 넘으면 가격 동조성**
한은 연구진은 2000년 이후 수요압력이

높고 근원물가 상승률이 2.5%를 지속적으로 웃돈 시기를 네 차례로 구분했다. 카드사태 이전인 2002년과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2분기~2008년 3분기, 금융위기 회복기인 2011년 2~4분기, 팬데믹 충격 회복기인 2022년 1분기~2024년 1분기다.

이들 시기에는 임금이나 자산가격 상승으로 가계의 소비 여력이 먼저 개선된 뒤 실제 소비와 물가가 시차를 두고 상승하는 공통점이 나타났다. 수요가 회복되자 기업들이 그동안 가격에 반영하지 못했던 원가 상승분을 전가하고, 가격 인상이 일부 품목에서 다른 품목으로 확산됐다.

특히 근원물가 상승률이 2.5% 안팎을 넘으면 개별 품목 가격이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동조성’이 급격히 강해졌다. 통계적으로 추정한 임계구간도 2.5~2.8%로 나타났다. 개인서비스 품목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 뚜렷했다.

과거에는 집세와 교육서비스 등 정책·제도적 영향을 받는 품목이 근원물가 상승을 주도했다. 반면 팬데믹 이후에는 초기 내구재 가격 상승에 이어 여행·숙박·음

식 등 경기와 수요에 민감한 개인서비스로 상승세가 확산됐다. 최근에도 개인서비스가 근원물가 흐름세를 이끌고 있어 가격 상승의 확산 범위와 지속성이 함께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 **GDP갭 1%p 확대에 근원물가 최대 0.4%p ↑**

계량분석에서도 수요가 이미 강한 국면일수록 추가 수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실제 국내총생산(GDP)이 잠재 수준을 얼마나 웃도는지를 보여주는 GDP갭률이 고수일 국면에서 1%p 확대되면 경기민감물가 상승률은 0.42%p 높아졌다.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추정한 0.11%p의 약 네 배다.

경기민감품목이 전체 근원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직접 추정치를 종합하면 GDP갭률이 1%p 확대될 때 근원물가 상승률은 약 0.1~0.4%p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출가격 상승으로 교역조건이 좋아져 실질 국내총소득(GDI)이 늘어나는 점도 추가적인 물가 상승 요인으로 지목됐다.

/김주형 기자 gh471@

“탄천물재생센터 이전지 확보 핵심과제”

》1면 ‘직주근접 유리…’서 계속

김 장관은 지난 27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탄천물재생센터는 옮기는 결정보다 이전 부지와 장소를 선정하는 게 더 어렵다”며 이전지 확보를 핵심 과제로 꼽았다. 서울시는 시설 이전에 4~5년, 이후 주택 건설에 다시 4~5년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어 단기간에 공급 효과를 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전 부지를 찾지 못할 경우 기존 처리 시설을 지하화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서울시는 현재 탄천물재생센터의 처리

시설을 이전·지하화하는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6년 서울시 업무보고’에 따르면 하루 80만톤 규모의 시설을 2034년까지 이전·지하화하는 계획을 내놨다. 다만 지하화로 악취·경관 문제를 줄이더라도 대규모 하수처리시설을 받아야 하는 이전 지역 주민의 반발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 **기대와 회의 엇갈린 주민 반응**

탄천물재생센터 현장에서는 센터 이전을 반기면서도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주택 유형을 두고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대청역 인근의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하수처리장이 옮겨가고 청년들이 들

어오면 고령층이 많은 동네가 활기를 찾을 것”이라면서도 “임대주택만 들어온다면 주민들이 선호하진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B중개업소 관계자는 “날이 안 좋을 때 약취도 심한 곳인데, 혐오시설을 받아줄 지역을 찾는 것부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탄천물재생센터를 이전하기보다 용산공원 일부를 활용하는 편이 현실적이라는 주민 의견도 나왔다.

일원동의 한 주민은 “이용률이 그리 높지 않은데 넓은 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두는 것은 아깝다”며 “청년들에게 집이 있어야 결혼하고 아이도 낳을 텐데, 집이 없으면 공원에서 뛰아날 아이들도 사라질 것 아니냐”고 말했다. /성채리 수습기자 cr56@

9월 첫 주, 전국 3개 단지서 3713가구 분양

분양 캘린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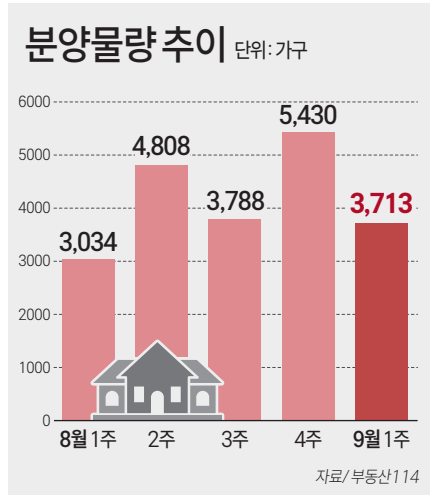
시티오씨엘9단지오션파크뷰
지상 최고 49층 9개동 1949가구

9월 첫째 주에는 전국 3개 단지 총 3713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이 가운데 일반 분양은 2387가구다.

3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시티오씨엘9단지오션파크뷰’, 인천 서해구 검암동 ‘검암역푸르지오프라베뉴(공공분양)’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IPARK현대산업개발·현대건설·포스코이앤씨는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일원에서 ‘시티오씨엘9단지오션파크뷰’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49층, 9개동, 전용면적 59~136㎡, 총 194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제2경인고속도로 진입이 수월해 수도권 인근도시로 이동이 편리하다. 2028년 수인분당선 학익역이 개통 예정으로 대중교통 편의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단지 바로 앞 대규모 공원(그랜드파크)이 조성될 계획이며 일부 세대는 서해바다 조망이 가능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췄다. 도보권 내 용현하이츠(2028년 9월)와 학익중(2029년 3월) 등이 개교 예정이다.

모텔하우스는 광주 북구 임동 ‘챔피언스시티1차’, 울산 남구 야음동 ‘그랑라크



에일린의뜰’, 충남 천안시 성정동 ‘두정역푸르지오그랑피크’ 등 4곳이 오픈 예정이다.

아이에스동서는 울산 남구 야음동 일원 남구B-14구역을 재개발한 ‘그랑라크에일린의뜰’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30층, 13개동, 총 1,521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전용면적 59~102㎡, 1153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수암로, 산업로, 남부순환로 등을 통해 울산 시내 이동이 용이하다. 롯데마트, 현대백화점, 뉴코아 아울렛 등 대형쇼핑몰과 남구청, 울산고속시외버스터미널 등이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위치해 생활인프라 접근성이 양호하다. /한상미 기자 smahn1@

신한금융, 주주환원·보상체계 등 논의

기관투자자 ‘이사회 라운드테이블’

신한금융지주 이사회는 지난 27일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을 초청해 ‘이사회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사회라운드테이블은 국내외 주요 투자자들과 그룹의 중장기 전략과 지배구조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신뢰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정례적으로 마련되는

자리다.

이번 행사에는 약 50개 국내외 기관투자자가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했다. 신한지주 과수근 이사회 의장을 비롯한 독립이사 6명과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등 주요 경영진도 참석했다.

기관투자자들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중장기 방향성과 주주환원 계획, 이사회 및 경영진 평가·보상체계 등을 중심으로 질의와 토론을 이어갔다. /나유리 기자

美 주정부, 데이터센터 건설 제동 K-배터리 ESS 사업확장 ‘적신호’

美 지역사회 데이터센터 건설 반발
관련 전력 인프라 투자 지연 가능성
업계, 반대 움직임·정책 변화 주시

미국에서 데이터센터 개발을 둘러싼 지역사회 반발이 확산되면서 국내 배터리 기업의 북미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 확대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데이터센터 건설이 지연되면 관련 전력 인프라 투자와 ESS 발주 일정도 늦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둘러싼 지역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대규모 전력 소비가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데다 냉각 과정에서 사용하는 용수와 소음,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데이터센터 유치가 따른 경제적 효과보다 지역 주민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면서 주정부도 데이터센터 개발에 제동을 걸고 있다. 텍사스주는 전력망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신규 데이터센터의 전력망 연결 승인 절차를 일시 중단했다. 펜실베이니

아주는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전기요금과 환경 보호, 지역사회 협의 등에 관한 기준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방식으로 이행하도록 했다. 지방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한 사업에는 관련 허가를 내주지 않고 AI 데이터센터를 신속 인허가 대상에서도 제외했다.

AI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연산 장비를 가동해 많은 전력을 소비하는 데다 작업량에 따라 전력 수요도 빠르게 달라진다. 전력 사용량이 단기간에 크게 늘면 지역 전력망의 안정성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전력 사용이 적은 시간대에 충전한 뒤 수요가 증가할 때 전력을 공급하는 ESS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 데이터센터 건설이 지연되거나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 이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전력 인프라 투자와 ESS 수요 증가 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응해 북미 생산설비 일부를 ESS 용으로 전환하며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데이터센터를 비롯해 전력망과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늘어나는 ESS 수요를 확보해 생산설비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ESS 시스템

통합 법인 베테크를 통해 현지 전력망과 재생에너지 사업에 배터리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다. 전기차배터리 생산시설 일부도 ESS용으로 전환해 북미 공급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삼성SDI는 미국 에너지기업들과 ESS 용 배터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현지 생산을 늘리고 있다. SK온도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배터리 생산라인 일부를 ESS 용으로 전환하는 등 북미 ESS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국내 배터리 기업이 공략하는 북미 ESS 시장의 주요 수요처 가운데 하나다. 지역사회 반발과 주정부의 규제 조치로 데이터센터 건설 일정이 늦어지면 관련 ESS 발주와 공급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데이터센터 증설을 둘러싼 현지의 반대 움직임과 정책 변화를 살펴보고 있다”며 “전력망 안정화와 재생에너지 연계 사업의 수요도 함께 늘고 있어 데이터센터 사업의 지연이 전체 ESS 시장의 위축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metro



지난 29일, 서울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한화 우주 컨퍼런스(Space, with us)’에서 정의훈 우주 전문 애널리스트가 강연을 하고 있다.

/한화

“우주산업 이끌 ‘한국판 스페이스X’ 필요”

한화 우주 컨퍼런스

국내 우주산업 현황·비전 공유

한화그룹이 우주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국내 우주산업의 미래를 전망하고 발사체·위성·인공지능(AI)을 아우르는 민간 주도 우주 생태계 구축 방향을 제시했다.

한화그룹은 지난 29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한화 우주 컨퍼런스(Space, with us)’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우주가 인류의 새로운 기회이자 미래 핵심 산업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국내 우주산업의 현황과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학과 인문학, 산업,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시각에서 우주의 의미와 미래를 살펴보는 강연이 이어졌다.

컨퍼런스에는 과학커뮤니케이터 궤도와전은지한국과학기술원(KAIST)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정의훈 우주 전문 애널리스트, 조승연 작가, 지음배 천문학자가 강연자로 참여했다. 이들은 우주탐사가

인류의 역사와 산업에 미친 영향을 비롯해 우주산업의 성장으로 10년 뒤 달라질 일상과 교육 현장의 변화 등을 소개했다.

행사에서는 세계 우주산업의 중심이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발사체와 위성, AI 인프라를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하고 국내 우주산업을 이끌 ‘한국판 스페이스X’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한화그룹은 2040년까지 우주항공과 AI 산업에 총 55조원을 투자해 독자 발사체와 위성망, 국방 AI 등을 아우르는 통합 우주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위치한 경남 창원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있는 사전, 전남 고흥 우주센터, 제주 한화우주센터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우주·항공 산업벨트 조성에도 집중한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컨퍼런스에 참여한 많은 분의 호응을 통해 우주산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대한민국이 AI 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우주산업 인프라 구축과 미래 세대 육성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車업계, 노사갈등 봉합… ‘신차출시·수출’ 속도

올해 임금·단체협약 마무리 수순
투산 등 신차 예고… 판매확대 집중

국내 완성차 업계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추석 전 마무리 짓고 하반기 판매 확대에 속도를 높인다.

한국GM을 시작으로 KG모빌리티(KGM), 르노코리아에 이어 지난 28일 기아까지 임단협을 최종 타결했다. 현대차 역시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상태로 조합원 찬반투표만 남겨둔 상태다. 중동 지역 지정학적 불안과 부품업체 화재 등의 문제로 상반기 자동차 수출 감소세를 기록한 국내 완성차 업계가 하반기 내수·수출반등을 노리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 5개사 가운데 마지막으로 현대차가 31일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잠정합의안이 가결되면 완성차 5개사의 올해 임단협은 모두 종료된다. 현대차가 마지막으로 임단협을 타결하면 올 여름 완성차 업계를 뜨겁게 달궜던 노

사 갈등도 종료된다.

완성차 업계는 노사간 갈등을 봉합한 만큼 본격적인 글로벌 판매 확대에 집중할 방침이다.

현대차는 올 하반기 수익성과 판매 확대에 총력을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올 상반기 부품사 화재와 노조의 파업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총 196만6267대를 판매하며 전년 동기대비 4.9% 감소한 실적으로 기록했다.

현대차는 올 하반기 잇따라 신차를 출시하며 본격적으로 판매 확대에 나선다. 현대차는 그랜저와 아반떼에 이어 투싼, GV80 하이브리드 등 주력 모델을 대거 선보인다.

올 상반기 최대 판매 실적을 기록한 기아는 노사 협력을 통해 상승세를 이어간다. 기아는 올 상반기 글로벌 시장에서 총 163만988대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대비 2.7% 증가하는 등 창사 이래 최대 상반기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 기아는 올 하반기 셀토스 하이브리드와 K4 하이브리드를

출시하면 판매 확대에 나선다.

현대차는 신차 출시와 생산 확대로 영업이익률 6.3~7.3%, 도매판매 415만8300대라는 연초가이던스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기아도 전년 대비 7% 늘어난 335만대 판매를 목표로 영업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중견 완성차 3사는 내수 판매 확대에 집중하는 한편 수출 물량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국GM은 전체 판매량에서 수출 물량 비중이 높은 만큼 트렉스 크로스오버와 트레일블레이저의 안정적인 생산을 이어갈 방침이다. 르노코리아와 KGM은 내수 경쟁력을 확보와 함께 해외 시장에서 추가 물량 확보에 집중할 전망이다.

완성차업계 관계자는 “추석 전 임단협 타결이 이뤄진 만큼 하반기 안정적으로 신차를 출시하며 올해 목표 달성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양성은 기자 ysw@

삼성전자, ‘플레이갤럭시 컵’ 정규리그 운영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협업

삼성전자가 모바일 게임 대회 ‘플레이갤럭시 컵’을 단발성 행사에서 글로벌 정규 리그로 확대했다.

삼성전자는 독일 쾰른메세에서 열린 ‘게임스컴 2026’에서 ‘플레이갤럭시 컵 월드 파이널’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6회째를 맞은 플레이갤럭시 컵은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실력을 겨루는 모바일 게임 대회다. 그동안 개별 행사 중심으로 열렸지만 올해 처음 지역 예선부터 월드 파이널까지 이어지는 연간 리그로 확대됐다.

삼성전자는 올해 배틀그라운드 모바일과 협업해 대회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플레이갤럭시 컵: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글로벌 오픈’을 열고 올해 리그의 시작을 알렸다.

이후 북미·서남아·동남아·중남미·유럽 등 5개 권역에서 예선을 진행했다.예선에는 17개국 32개 팀이 참가했다. 각 권역 상위 2개 팀씩 9개국 10개 팀이 월드 파이널에 진출해 지난 27~28일 이틀간 게임스컴에서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했다. 말레이시아 팀이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모든 선수는 갤럭시 S26 울트라로 경기를 치렀다.

삼성전자는 고성능 프로세서와 발열 제어 시스템을 앞세워 장시간 게임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포니.ai, 국내 자율주행 시장 본격 진출

퓨처링크 협력… 로봇택시 200대 도입

글로벌 자율주행 기업 포니.ai가 퓨처링크와 손잡고 한국에 7세대 로봇택시 200대 우선 도입을 추진한다. 국내 차량 인증을 마친 뒤 서울을 시작으로 안전운전자 없는 완전 무인 자율주행 서비스까지 선보일 계획이다.

퓨처링크와 포니.ai는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전략적 협력 협약(MOU)을 체결하고 국내 자율주행 상용화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양사는 서울 강남에서 진행해 온 자율주행 기술 실증을 넘어 실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 단계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퓨처링크는 포니.ai와 약 2년간 협력 관계를 이어왔으며 지난해 1월부터 서울 강남에서 자율주행 실증을 진행해 왔다. 차두원 퓨처링크 대표에 따르면 강남에서만 약 8만7000km를 주행했으며 자율주행 중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교통량이 많고 오토바이와 물류차량, 공사구간 등이 밀집한 강남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도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양사의 역할도 나뉜다. 포니.ai는 자율주행 기술과 차량을 공급하고 퓨처링크는 국내 차량·서비스 운영과 데이터 관리, 현지화를 맡는다. 한국 도로환경에 맞



(좌측부터)남경필 퓨처링크·포니링크 회장, 제임스 평 포니.ai 공동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 차두원 퓨처링크 대표가 MOU 체결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국자동차지협회

춘 데이터 라벨링과 지도 구축, 알고리즘 업데이트 등도 퓨처링크가 담당한다.

합작법인(JV)은 차량 인증 이후 설립할 예정이다. 양사는 국내에 들어오는 차량과 플릿 규모에 맞춰 합작법인을 구성하기로 했지만 출자 규모와 지분율 등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포니.ai도 한국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출자할 계획이다.

남경필 퓨처링크·포니링크 회장은 “실증 단계를 지나 상용 사업 단계로 들어갈 준비가 됐다”며 “국내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해 고령자와 장애인, 농촌 거주자 등 이동에 제약을 받는 이용자가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승혁 수습기자 sh95@

20년 ‘K-소방’ 노하우… AI 입혀 통합 안전기업으로 도약

혁신기업 돋보기

프라임이엔씨

소방시설관리업 3년 연속 실적 1위
터널 400여곳 점검 데이터 축적
AI 기반 스마트 안전관리 기술 개발
원전 유지관리 시장 점유율 80%
특수안전 매출 비중 60%로 확대
5년 뒤 매출 400억~500억 목표

프라임이엔씨가 7월부터 기존 사명인 ‘프라임방재’에서 회사 간판을 바꿔달고 소방점검 회사를 넘어 인공지능(AI) 기반의 통합 엔지니어링 기업으로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다.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소방시설관리업 실적평가 1위를 기반으로 한 ‘K-소방’ 노하우로 글로벌 시장을 적극 공략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김희택 프라임이엔씨 대표는 30일 “우리는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들이다. 안전한 세상을 약속하는 회사다. AI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미래형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안전전문기업으로 성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희택 대표는 2005년 지금의 회사를 설립했다.

프라임이엔씨는 건축물 소방안전진단·



김희택 프라임이엔씨 대표가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회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메인비즈협회

소방시설 유지관리 등 안전분야, 소방·전기공사업 등 전문건설분야, 원자력발전소 및 도로공사 특수터널 유지 관리 등 특수사업 분야에서 20년 넘는 업력을 착실히 쌓아왔다.

소방시설관리업 실적평가 1위는 전국에 있는 12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거둔 쾌거다.

김 대표는 “소방산업 분야는 수많은 업체들이 난립하고 저가 경쟁도 심한 시장이다. (낮은)가격만 따라가선 지속적인 경쟁이 힘들다”면서 “많은 회사들과의 경쟁 속에서 기술, 데이터 축적 필요성이 높았다. 그래서 연구개발전담조직을 꾸려

소방기술과 특허, 글로벌 시장 분석 등을 체계화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프라임이엔씨는 현장에서 축적한 경험을 연구개발과 디지털 기술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프라임미래혁신연구소와 도시인프라융합연구소를 중심으로 AI 기반 스마트 안전관리 기술 개발이 대표적이다. 특히 터널 제트팬의 성능검증과 정밀점검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을 강화하고 있다.

김 대표는 “터널의 제트팬은 평상시엔 환기를, 화재시엔 산소통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런데 터널의 위에 있기 때문에 평상시 유지관리가 쉽지 않아 방치되기 일쑤”

라면서 “특히 비상 상황에선 이용자 피난과 소방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기적인 성능검증과 정확한 상태평가가 절실하다”고 전했다.

프라임이엔씨는 전국 400여 개 터널의 성능검증, 정밀점검과정에서 축적한 데이터를 활용해 모바일 제트팬 진단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현장 측정, 성능 평가, 보고서 작성까지 모든 과정을 디지털화했다.

아울러 부식 방지 등을 위한 ‘블록형 제트팬 케이싱’을 비롯해 ‘임펠러 없는 환기팬’, ‘터널용 피난안내시스템’ 등 다수의 특허까지 확보했다. 전기차가 갈수록 많아지면서 터널내 화재는 더욱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특수분야인 원자력발전소 점검·유지관리는 프라임이엔씨가 80%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독보적인 위치를 선점하고 있다. 2015년엔 이와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 Q등급을 획득하기도 했다.

기존 건물의 소방 안전진단, 유지관리 뿐만 아니라 이처럼 특수분야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기술력을 꾸준히 축적하며 회사 전체 매출에서 일반 방재 분야는 40% 정도로 줄고 특수안전 분야는 60%까지 늘어나는 등 사업 포트폴리오도 안정적이다.

일반 방재의 경우 서울 약 1200곳을 포함해 전국 2000곳 가량의 건물을 담당하면서 지금까지 인사고사도 단 한건도 없

었다.

김 대표는 “시중에 나온 제품이 없어서 ‘스마트소방안전관리시스템’도 7년여 간의 노력 끝에 자체적으로 개발했다”면서 “이를 통해 건물주들과 실시간으로 안전 이슈에 대해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다. 관련 시스템 덕분에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거래처가 3배 정도 늘기도 했다. (웃음)”고 말했다.

이처럼 서비스·디지털 혁신, 전문기술 인력 이탈방지를 위한 조직혁신 등 경영 혁신 노력 성과는 매출과 고용 창출로 이어졌다. 2017년 대비 2025년 현재 매출 증가는 302%, 고용 증가율은 187%에 이르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220억원 매출이 올하는 200억원 정도로 다소 주춤할 전망이지만 5년후 목표는 400억~500억원이다.

회사는 2023년엔 고용노동부가선정하는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뽑혔다. 2024년에는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과 ESG 경영혁신, 장학사업 및 사회 공헌 활동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중소기업 기술·경영혁신대전에서 산업포장을 수훈했다.

김 대표는 “앞으로도 기술혁신과 품질 경영을 바탕으로 고객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가장 신뢰받는 안전 파트너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싱가포르에 K-글로벌 벤처펀드 조성

중기부, MAS 펀드운용 본인가
한국벤처투자 첫 해외 운용 인가
2030년까지 3억달러로 확대

올 하반기 싱가포르에 역외 글로벌 모펀드인 ‘K-글로벌 벤처펀드(K-VCC)’가 조성된다. 이에 따라 국내 스타트업, 벤처기업, 벤처캐피탈(VC) 등의 진출 기회가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벤처투자 싱가포르 법인(KVIC ASIA)이 싱가포르 통화감독청(MAS)으로부터 가변자본회사(VCC) 펀드 운용을 위한 자본시장서비스(CMS) 라이선스 본인가를 지난 20일 취득했다고 30일 밝혔다.

‘VCC(Variable Capital Company)’란 하나의 VCC 아래 여러 하위펀드(Sub-fund)를 둘 수 있는 싱가포르의 투자펀

드 전용 법인 형태로, 각각의 하위펀드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번 라이선스 취득은 벤처투자 정책금융기관인 한국벤처투자의 최초 해외 현지 자산운용 인가 사례다. 이에 따라 한국벤처투자 싱가포르 법인은 현지에서 펀드 운용사로서 펀드를 조성·운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특히 역외 글로벌 벤처펀드 조성을 위한 핵심 인허가 절차가 끝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중기부는 지난해 발표한 ‘벤처 4대강국 도약 종합대책’에 따라 글로벌 투자자금 유치 촉진과 국내 벤처생태계의 해외 확장을 지원하기 위해 아시아 금융허브인 싱가포르에 역외 글로벌 모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2030년까지 3억 달러 규모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는 지난

해 4월 싱가포르에 현지법인 설립을 완료했다. 이후 현지 인력 채용 및 운용체계 구축과 함께 싱가포르 MAS의 펀드 운용 라이선스 취득 절차를 추진해 왔으며 지난 7월에 펀드운용 라이선스 가승인을 받은 데 이어 초고속으로 본인가를 취득했다.

라이선스 본인가 취득을 계기로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는 올해 하반기 K-글로벌 벤처펀드 조성을 목표로 VCC 설립과 하위 펀드 조성 등 후속 절차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국내 유망 스타트업이 글로벌 자본과 네트워크를 발판 삼아 세계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K-글로벌 벤처펀드를 아시아 벤처투자의 핵심 플랫폼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신영수 “글로벌서 성장 해법 찾아야”

(CJ대한통운 대표)

하반기 타운홀서 사업전략 공유

신영수 CJ대한통운 대표가 “퀵배송을 위한 선택 더 큰 시장인 글로벌에서 새로운 성장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30일 CJ대한통운에 따르면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열린 ‘2026 하반기 타운홀미팅’에서 신 대표는 “글로벌 사업의 성장 잠재력을 실질적인 성과로 만들어내는 동시에 국내에서도 압도적인 경쟁력과 수익성을 확보해 CJ대한통운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가자”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날 진행한 타운홀미팅은 상반기 경영성과와 하반기 사업전략을 임직원들과 공유하는 자리다.

신 대표는 먼저 상반기 경영성과를 돌아보며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택배물량과 풀필먼트 매출이 두 자릿수 성장하는 등 외형성장을 이어간 점에 의미를



신영수 CJ대한통운 대표가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열린 ‘2026 하반기 타운홀미팅’을 통해 임직원과 미래성장전략을 공유하고 있다. /CJ대한통운

부여했다.

특히 지속적인 운영효율화를 추진하며 생산성과 원가경쟁력을 높이는 등 차별화된 사업 경쟁력을 입증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동 전쟁 등 대외 변수로 인해 영업이익이 감소한 만큼, 외형성장을 수익성으로 연결하는 것이 향후 과제라고 진단했다. /김승호 기자

중진공, 중소 수출기업 국제물류비 지원

내달 9일까지 참여기업 모집
우체국 요금 최대 40% 할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우체국 국제물류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9월 9일까지 모집한다.

30일 중진공에 따르면 이 사업은 우체국의 수출 물류 서비스를 이용 중이거나 예정인 수출실적 1만달러 이상의 중소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이용도가 높은 국제특급우편(EMS), 국제특급우편(EMS) 프리미엄, 케이패킷(K-Packet),

소형 포장물 등 국제우편 서비스 이용비용을 지원한다.

사업에 선정된 중소기업은 우체국 국제물류 이용 시 정상이 대비 최대 40%의 할인을 적용 받고, 이용 후 중진공으로부터 할인 전 정상가의 최대 3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기간은 선정일로부터 올해 12월 말까지며, 기업당 지원한도는 최대 500만원이다. 이와 함께 해당 한도 소진 시 최대 5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총 100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사업에선 우체국이 참여기업의 국제물류 이용 증빙자료를 중진공에 직접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원 절차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선정기업은 관련 증빙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지원금 수령이 가능해 중소기업의 편의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내용은 고베즈코리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석진 이사장은 “중동전쟁 발 유가 상승, 고환율 등 불확실한 대외환경 속에서 이 사업을 통해 수출 물류 부담을 완화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LX하우시스, ‘취향의 발견’ 마케팅 강화

리모델링 영상 조회수 50만회

LX하우시스의 ‘취향의 발견’ 리모델링 내용이 담긴 유튜브 영상이 50만뷰, 티저 광고가 40만뷰를 각각 넘어서며 화제다.

30일 LX하우시스에 따르면 올 가을 ‘취향의 발견’을 마케팅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B2C 인테리어 시장을 적극 공략해 나갈 계획이다.

벽과 바닥, 창호, 주방가구, 수납가구

등을 개별 제품으로 선택하기보다 하나의 취향으로 연결된 공간을 선호하는 주거 트렌드를 반영한 테마다.

이를 위해 지난 27일에는 ‘취향의 발견’ 테마의 첫 브랜드 앰버서더로 활동하고 있는 브랜딩 전문가인 노희영 히노컨설팅 대표와 건축아파트를 리모델링하는 과정과 완성된 공간을 담은 영상을 노희영 앰버서더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김승호 기자

6시간 야외활동 후, 피부는 달라집니다.

보이지 않는 보호, 더 우아한 선크어
골프, 여행 등 야외 활동을 위한 초슬림 투명 UV패치

Salut 
Lucide
UV PROTECTION PATCH



세계 100대 골프 코스,
엄격한 제품 선별 기준의

해슬리 나인브릿지에
국내 유일 입점

UV-A 98% / UV-B 99% 차단

광대까지 커버되는
88mm × 60mm 대형 패치

접착제 없이 편안한 밀착

자외선 차단 + 피부 보습 케어



Anano Inc. | 070-7773-9931 |

- 가양역_메가팜스 가양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금부빌딩 3층
- 을지로입구_명동퍼스트약국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14 눈스퀘어 1층 (T.02-3789-7277)
- 명동역_Hello K Beauty / WYNN (Currency Exchange, ATM, LUggage)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6길 6, 원스환전소 2-3층

- 양재역_메디피아 약국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42, 크리스탈빌딩 1층 (T.02-3463-1547)
- 신논현역_비비 약국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76, urbanhive 지하 2층 (T.02-542-8559)
- 해슬리 나인브릿지 / 경기도 여주시 명품1로 76 (T.031-887-9999)
- 제주 나인브릿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로 34-156 (T.064-793-9999)

마케팅 고민, 솜품으로 풀어내… 고객유입 1년새 125배 늘어

LG헬로비전

구지은·김은영·김자영 선임 ‘3인방’ SNS 솜품 콘텐츠로 팔로워 1만명

케이블TV 가입자에 상품구성부터 0원짜리 알뜰폰 요금제 등 설명 케이블TV 지역성, 콘텐츠로 소개

“처음에는 우리끼리 하는 비밀 프로젝트에 가까웠죠. 이제는 24시간 열려 있는 고객 소통 창구가 됐습니다.”

“어려운 상품 설명도 친근하고 쉽게 알릴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어요.”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솜품 콘텐츠로 고객 친화 마케팅에 나선 LG헬로비전 임직원들이 한 말이다. 30초 내외 짧은 영상이 호응을 얻으면서 인스타그램 공식 채널 팔로워 수는 최근 1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 지난 27일 (메트로경제신문)은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LG헬로비전 본사에서 구지은 브랜드매니지먼트팀 선임, 김은영 콘텐츠사업팀 선임, 김자영 경남동부영업팀 선임을 만났다. 프로젝트 정식 명칭은 없지만 이들 3인방은 이미 LG헬로비전 브랜드의 새 얼굴이다.



(오른쪽부터)구지은 브랜드매니지먼트팀 선임, 김자영 경남동부영업팀 선임, 김은영 콘텐츠사업팀 선임이 지난 27일 경기도 고양시 LG헬로비전 본사에서 진행한 인터뷰를 마치고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조민선 기자

◆‘팔릴까?’ 고민에서 시작…임직원 직접 솜품 배우로

콘텐츠 제작을 시작한 배경에는 ‘이 방식으로 시장에 출시하면 팔릴까?’라는 의문이 있었다. 상품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에 대한 고민이 매우 솜품 아이템을 논의하는 기획 회의로 이어졌다.

이런 과정을 거쳐 도출한 아이디어를 직접 연기로 구현하는 것도 이들의 몫이다. 프로젝트 총괄을 맡은 구지은 브랜드

매니지먼트팀 선임은 “처음에는 모델을 섭외했었는데 촬영을 진행하다보니 회사와 서비스에 대한 이해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임직원들이 직접 나서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영상은 SNS에서 케이블TV 가입자에게 달라진 상품 구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고정비를 아낄 수 있는 0원짜리 알뜰폰 요금제를 유쾌한 방식으로 소개한다. 명절에는 효도 선물로 적합한 렌탈 가전

도 추천한다.

예를 들면 고정비 절감처럼 다소 딱딱한 주제는 상황극으로 풀어내고, 트로트 상품을 소개할 때는 직접 장구를 치고 노래하며 가수로 변신한다. 일방적인 상품 설명보다 직원들의 연기를 통해 소비자가 먼저 재미를 느끼도록 하는 방식이다.

◆지역 고객 친밀도 높이는 사투리 연기 ‘눈길’

김해·원주 등 지역 오프라인 거점과 솜품 연계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지역 고객의 실제 애로 사항을 반영한 내용을 유쾌한 분위기로 연출해 딱딱한 오프라인 영업 방식을 보완하는 식으로 제작한다.

특히 김자영 경남동부영업팀 선임(가명 영자)은 파마 머리 가발을 쓰고 지역 사투리를 소화하며 활약하고 있다. 현장에서 고객을 직접 응대하다 보니 팔로워 수보다 감성에 주목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선임은 “어르신들의 경우 아직도 TV 상품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신뢰감과 친밀감을 집중적으로 전달하는게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치열한 삶 속에서도 살아가는 역척스러운 엄마, 애가가 무거운 아빠 그리고 철없는 아이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싶다”고 콘텐츠 제작에 대한 애정도 드러냈다.

◆판매 채널 유입 125배 ↑… 이제는 ‘지역성’ 알린다

솜품을 통한 콘텐츠 효과는 실제 판매 채널 유입으로 이어졌다. 솜품 등 콘텐츠 게시 이후 SNS에 올린 링크를 통해 직영 물에 방문한 고객은 1년 동안 무려 125배(28건→3만5000건) 확대됐다.

신규 고객 연령층도 다양해졌다. 지난해 솜품을 선보인 이후 SNS 활동에 참여하는 연령층 범위는 35~45세(36%)에서 18~24세(41%)로 점차 확대됐다. 이를 기반으로 케이블TV·알뜰폰 등을 고연령층만 사용하는 선입견을 해소하는 게 목표다.

프로젝트는 무기한 진행된다. 케이블TV가 가진 지역성을 긍정적으로 알리는 콘텐츠도 조만간 선보일 예정이다. 충남, 경남, 강원도 등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23개 권역에서 지상파 뉴스와 구분되는 지역 채널을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이들은 LG헬로비전을 로컬 감성을 진정성 있게 조망할 수 있는 지역 방송 사업자라고 입을 모았다. 지역 사회와 깊이 호흡하는 의미있는 콘텐츠를 한번 짚어보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다. 지역의 목소리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담아낼 수 있다는 데서 이들의 자부심이 묻어났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카톡에서 AI로 병원 예약부터 금융·공공업무까지 처리

오늘 AI

카카오, ‘모두의 AI’ 수행 사업자 선정 카나나·K-엑사원 기반 AI 에이전트 답하는 AI 넘어 ‘행동하는 AI’ 목표 개인정보 보호 등 신뢰성 확보 ‘과제’

5000만명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이 인공지능(AI)의 새로운 ‘입구’로 변한다.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듯 AI에 말을 걸면 필요한 정보를 찾아주는 것을 넘어 병원 예약과 금융·공공 업무 등 실제 일까지 대신 처리하는 방식이다. 카카오는 국민 대부분이 이미 사용하는 카카오톡을 앞세워 글로벌 빅테크와의 AI 서비스 경쟁에 승부수를 던졌다.

30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추진하는 ‘전 국민 A

I 서비스 보편적 활용 지원’ 사업인 ‘모두의 AI’ 수행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SK텔레콤과 KT가 주도하는 컨소시엄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모두의 AI는 국산 AI를 활용해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AI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과기정통부와 NIPA는 AI 모델·서비스 경쟁력과 그래픽처리장치(GPU) 활용 계획, 서비스 편의성, 이용자 확보 전략, 품질·안전성 등을 종합 평가했다. 정부는 올해 3개 컨소시엄에 엔비디아 B200 GPU 총 512장을 지원하고 내년부터 서비스 운영비도 뒷받침한다.

◆카톡에서 묻고 예약·결제까지…‘행동하는 AI’ 노린다

카카오 전략의 중심에는 카카오톡이 있다. 별도의 AI 앱으로 이용자를 끌어오는 대신 매일 사용하는 카카오톡 안에 AI를 녹여 이용 장벽을 낮추겠다는 전략이다.

카카오는 자체 AI 모델 ‘카나나’와 LG AI연구원의 ‘K-엑사원’ 등을 기반으로 범용 챗봇과 분야별 AI 에이전트를 선보인다. 서울대병원·신한은행·루닛 등 파트너와 의료·금융·교육·돌봄 분야를 연결해 정보 탐색 이후 예약·신청·결제까지 이어지는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핵심은 ‘답하는 AI’를 넘어 ‘행동하는 AI’로 가는 데 있다. 현재 생성형 AI가 질문을 받고 정보를 정리하는 역할에 강점을 보였다면 앞으로는 이용자의 의도를 파악해 필요한 서비스를 찾고 실제 업무까지 수행하는 AI 에이전트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카카이가 최근 꺼낸 대규모 사업 재편 과도 맞물린다. 카카오는 카카오톡과 카카오톡X로 인적분할해 카카오톡에 카카오톡과 AI, 광고, 커머스를 집중시키기로 했다. 카카오톡 이용자를 AI 이용자로 전

환하고 AI 이용 증가를 광고·커머스 등 수익 사업으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카톡 vs 통신 vs TV…AI ‘입구’ 경쟁

SK텔레콤은 ‘A.X K2’ 등을 기반으로 예약과 전화 등 후속 업무까지 수행하는 ‘행동형 AI 비서’를 구축한다. 정부24와 PASS 등을 연결하고 전화와 문자에서도 AI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KT는 업스테이지·모티프테크놀로지스·NC AI 등의 모델과 다음·무신사·직방·BC카드·EBS 등을 연결한다. 지니TV에도 AI를 배치해 검색부터 생활 서비스 실행까지 하나의 대화로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카카이가 카톡, SKT가 통신, KT가 TV와 생활 플랫폼’을 AI의 입구로 내세운 셈이다. 결국 모델 성능뿐 아니라 누가 이용자의 일상과 가까운 곳에서 AI를 작동시키느냐가 승부처로 떠오른다.

◆5000만 이용자 확보했지만…진짜 경쟁자는 글로벌 AI

카카오의 최대 강점은 별도의 이용자 확보 과정이 필요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카카오톡 이용자가 곧바로 카카오톡 AI 이용자가 된다는 보장은 없다. 이미 오픈AI 챗GPT와 구글 제미니, 엔트ropic 클로드 등이 국내에서도 자리를 잡은 만큼 기존 서비스보다 편리하고 차별화된 경험을 증명해야 한다.

특히 AI가 병원·금융·결제 등 실제 행동까지 대신하는 단계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정확성, 보안에 대한 요구도 높아진다. 이용자가 안심하고 업무를 맡길 수 있는 신뢰성까지 확보해야 하는 이유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AI 서비스가 무엇이라는 것”이라며 “AI가 국민에게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에 대한 서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저작권 등 AI 활용의 양면성과 비용 대비 효과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최빛나 기자 vitna@

KT, 서울대·카이스트와 AI 공동연구 워크숍 진행

산학 공동연구 최종성과 공유

KT가 핵심 인공지능(AI) 기술의 산학 연구개발 협력을 강화한다.

KT는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연구진과 산학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KT·서울대학교·KAIST의 총 50여 명 연구진이 워크숍에 참여한 가운데 최근 1년간 진행한 산학 공동연구의 최종 성과를 공유하고 관련 기술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KT는 서울대와 ▲자율형 에이전트를 위한 상황 맥락 이해 및 추론 ▲RAI(Responsible AI) 평가 기준 및 신뢰성 개선



KT AX미래기술원장 박재형 상무(앞줄 오른쪽 네번째), 서울대학교 AI연구원 정문식 교수, 김재철 AI대학원 김기웅 교수(오른쪽 일곱번째부터)를 비롯한 워크숍 참가자들이 기념 촬영 하고 있다. /KT

▲한국적 데이터셋 확보 및 행동 예측 모델 개발 ▲사용자 피드백 강화학습 프레임워크를 중점적으로 연구했다.

카이스트와는 프롭트 압축 및 최적화 기술도 연구했다. 이를 통해 대규모 언어 모델의 입력 처리 부담을 줄이고 AI 모델

과 에이전트 서비스의 추론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KT는 이번 연구를 통해 확보한 핵심 연구 성과가 실제 모델·플랫폼·서비스 경쟁력으로 이어지도록 기술 검증과 내재화를 추진한다.

/조민선 기자

LG U+, 글로벌 멤버십 서비스 선보인다

‘원더조이 트래블 얼라이언스’ 가입

LG유플러스가 일본, 태국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글로벌 멤버십 서비스를 연내 선보인다.

LG유플러스는 글로벌 통신사 연합체 ‘원더조이 트래블 얼라이언스’ 가입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해외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글로벌 멤버십 서비스를 연내 선보인다.

‘원더조이 트래블 얼라이언스’는 국가별 통신사가 보유한 혜택을 공유하는 글로벌 통신사 협력 플랫폼이다. 국가당 통신사 한 곳만 가입할 수 있다. 현재 싱가포르(싱텔), 일본(KDDI), 홍콩(HKT), 태

국(AIS), 대만(타이완 모바일), 필리핀(글로브), 인도네시아(텔콤셀), 호주(옵터스) 등이 참여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한국을 대표해 신규 회원사로 합류했다.

국내 중심의 멤버십 서비스를 해외까지 확장하고 여행 시 체감할 수 있는 고객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가입을 결정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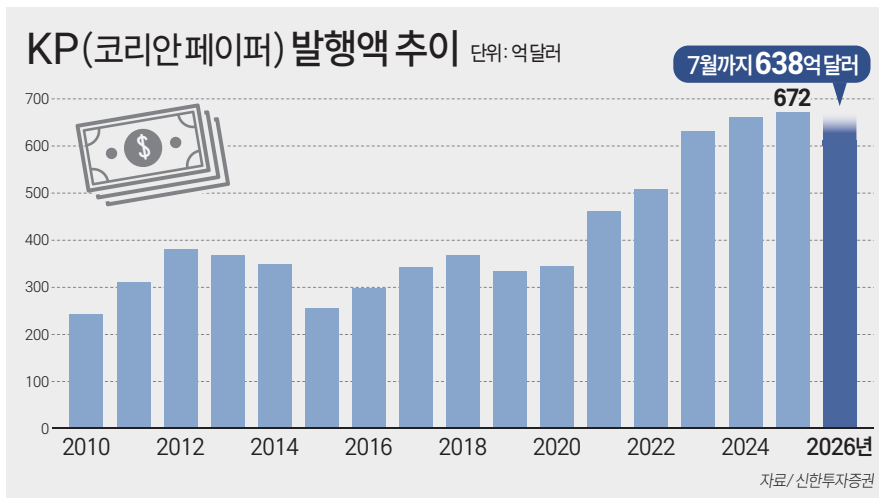
앞서 LG유플러스는 국내 고객 방문 비중이 높은 일본을 중심으로 지난 6월부터 8월 말까지 시범 서비스를 운영했다. 시범 운영 기간 로밍패스 가입 고객 중 응모자를 대상으로 ▲돈키호테 할인 쿠폰 ▲로손(편의점) 할인 ▲고택스 할인 등을 제공했다.

/조민선 기자

“한국 채권 없어서 못 산다”… 638억달러 몰리며 ‘흥행’

올 외화채 순발행 사상 최대 전망
원화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
대미투자자 외화 조달 수요 커질 듯

NH투자증권은 지난 6월 미화 6억달러(약 9200억원) 규모의 유로본드(Reg S)를 발행했다. 국내 증권사 중 가장 큰 규모의 외화채권 신규발행이다. 북빌딩 개시 이후 총 196개 기관으로부터 최대 46억달러 이상의 주문이 몰리며 발행금액의 약 7.6배에 달하는 오버부킹을 기록했다. 최종 제시금리(FPG) 단계에서도 발행금액의 약 5.1배에 달하는 투자자 주문이 유지됐다. 글로벌 큰손들이 앞다퉈 ‘매수’에 나서면서 조달 비용 부담도 줄었다. 고정금리부 형태로 발행된 이번 채권의 최종 금리는 3년물 4.937%(미국 국채 대비 +70bp), 5년물 5.038%(+75bp)로 결정되며 국내 증권사 역대 최저 스프레드를 경신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역대 최저 스프레드 달성과 유수의 글로벌 투자자로부터 주문을 기록한 것은 NH투자증권의 재무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확인한 결과”라고 밝혔다. NH투자증권은 무디스 A3(안



정적)·S&P A-(안정적)의 투자적격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도 같은 달 창사 이래 처음으로 글로벌본드를 발행했다. 이번 채권은 5년 만기 5억달러(약 7700억원) 규모의 단일 트랜치(만기 구조)로 발행됐다. 금리는 미국 국채금리에 0.9%포인트를 가산한 수준이다. 총 주문 규모는 발행액의 네 배 수준인 20억달러어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금리는 최초 제시금리 대비 0.3%포인트 축소된 수준에서 최종 발행하기로 결정됐다.

글로벌 ‘큰손’들 사이에서 KP(코리안페이퍼)물이 품절난으로 떠올랐다. KP란 한국 기업이 외국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외화 표시 채권을 말한다. 기업들이 달러로 채권을 발행하면 원화 채권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데다,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 환차익도 챙길 수 있다.

3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KP 발행액은 638억달러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간 발행액(672억달러)의 95%에 달한다. 이 같은 추세라면 연간 순발행액이 사상 첫 300억달러를 넘

어설 전망이다. 순발행액은 상반기에만 200억 달러에 달했다.

김상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내 수요예측에서 KP물을 찾는 큰손들이 많다. 이에 최근 KP 스프레드가 미국 크레디트물 대비 상대 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아시아 시장에서도 KP물의 인기가 높아 전반적 견고한 수요가 확인된다”고 전했다.

하나은행이 지난달 28일 미화 3억 달러(약 4412억 원) 규모의 5년 만기 포모사본드를 발행했다. 채권의 금리는 미국 무위험지표금리(SOFR)에 68bp(1bp는 0.01%포인트)를 더한 수준으로 결정됐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그간 대만 시장에서 심리적 저항선으로 인식해 왔던 70bp를 하회하는 가산금리”라며 “역대 최저”라고 했다. 하나은행의 포모사본드 발행은 2019년 6월 미화 4억 달러(약 5864억 원) 규모 포모사본드 발행 이후 약 7년 만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지난달 20억달러 규모의 달러화 채권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 금리는 미국 국채 3년물·5년물 금리에 각 18bp(1bp=0.01%포인트)·21bp를 더한 수준이다. 이는 한국에서 발행된 외화

채권 중 가장 낮은 가산금리라고 수은은 밝혔다. 외화채권 발행 시 가산금리는 각 발행사의 신용도에 따라 정해진다.

우리은행은 런던, 홍콩, LA, 싱가포르 4개 국외영업점이 현지에서 직접 외화채권을 발행해 총 2억7500만달러를 조달했다. KP 발행에 나서는 기업들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6월 한미 전략적 투자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협력 투자로 구성된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리 측면에서도 외화채 시장의 매력ity 부각되고 있다. 국내 금리 상승으로 원화채와 외화채 간 조달금리 격차가 줄었다.

국회에는 국민연금공단이 해외에서 외화표시채권을 직접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한편 올해 하반기 한국 공기업과 기업·금융기관이 갚아야 할 외화채권은 261억달러다. 지난해 하반기보다 22% 많다./하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etro

고금리에 주주환원까지… 금융주 ‘재평가’

변동성 장세에 반도체주와 ‘투트랙’
안정적 수익률·높은 주주환원 매력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면서 금융주가 새로운 투자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주가 조정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아진 데다 높은 주주환원 매력과 고금리 방어력까지 부각되면서 반도체와 함께 포트폴리오의 한 축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들어 KRX 은행 지수는 4.76% 상승했으며, KRX 증권 지수는 3.06% 하락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KRX 은행 지수는 23.73%, KRX 증권 지수는 26.88%씩 오름세를 보였으나 주춤하는 모습이 다.

증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시장에서는 높은 주주환원 매력을 갖춘 금융주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들어 주가가 조정을 받아 가격 부담이 낮아진 점도 투자 매력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다. 특히 은행주의 경우 가파른 순자산(BPS) 증가세와 함께 밸류에이션 저평가 매력이 한층 부각되는 흐름이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KB금융의 주가 순자산비율(PBR)은 2026년 추정치 1.1배에서 2027년 1.0배로, 하나금융지주는 0.9배에서 0.8배로 각각 낮아질 전망이다.

이 증권사 정민기 연구원은 “여전히 시장의 변동성이 높은 가운데 은행주의 안정적인 주가 수익률과 높은 주주환원율의 상대적 매력도가 재조명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2027년 장부까지 기준으로 시점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가파른 BPS 증가 속도에 따른 PBR 하락이 은행주 투자 매력도를 더욱 끌어올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은행주를 비롯한 주요 금융주의 주주환원율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형성하고 있다. KB금융(55.4%), 신한지주(52.9%), 하나금융지주(50.0%), 카카오뱅크(50.0%), 메리츠금융지주

(50.0%) 등의 주주환원율은 50% 이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증권 업종에서도 NH투자증권(45.7%)과 미래에셋증권(40.5%)이 40%대를 유지하고 있다.

고금리 환경도 금융주에 우호적인 여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장중 한때 4.74%까지 오르며 지난 7월 말을 제외하고 2025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날 미국 30년물 금리도 5.33%까지 올라 2007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스코트 베스트 미 재무장관이 깜짝 시장 개입에 나서면서 진정세를 보였지만, 미 국채 발행 부담과 인플레이션 우려로 글로벌 시장금리의 하락 압력은 제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업종별로는 보험주가 금리 상승의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다. 이날 들어 KRX 보험 지수는 15.52% 상승하면서 큰 폭으로 뛰었다. 보험사는 고객으로부터 거둔 보험료를 바탕으로 10~30년 만기의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변동성 장세 속 고금리·주주환원 매력이 부각되며 금융주가 새로운 투자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초장기 채권에 투자하는 만큼, 금리가 상승하면 신규 매입 및 만기 재투자 채권의 운용수익률이 개선되는 구조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케빈 위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장의 정책 기조가 뚜렷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금융업은 비중 확대에 대응하는 것이 수익률 방어에 유리할 것”이라며 “역사적으로 고금리 환경에서 금리 상승과 주가 상승률이 정비례 관계를 나타낼 확

률은 보험, 은행이 가장 높다”고 짚었다.

이어 그는 “이번 주에는 공격적인 지수 추종보다 고금리 방어와 실적 가시성, 그리고 주주환원 기대까지 보유한 종목으로 대응하는 전술이 필요하다”며 “반도체가 시장을 여전히 주도할 것이나 ‘투트랙’ 측면에서 보험, 은행 등 금융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고평가 논란 삼성중공업… FDC·美 합정 수주가 ‘반전 카드’

주요 조선주 중 PER 가장 높아
증권가 “미래 수익성 보면 저평가”
FDC 등 주가 상승 동력으로 거론

국내 조선주 가운데 삼성중공업이 수익 대비 주가가 가장 비싼 종목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증권가의 시선은 다르다. 현재 실적 기준으로는 고평가된 것처럼 보이지만, 수익성이 정상화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상승 여력을 갖춘 종목이라는 것이다. 이 간극을 줄일 마지막 퍼즐은 무엇일까.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직전거래일(8월 28일) 삼성중공업의 주가수익비율(P

ER)은 33.02배로 조선 관련 주요 5개 종목 가운데 가장 높다. HD현대중공업(18.10배), 한화오션(13.07배), HD한국조선해양(7.28배), HD현대(6.30배)를 크게 웃돈다. 이는 현재 벌어들이는 이익 규모에 비해 삼성중공업의 주가가 경쟁사보다 높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뜻이다. 단순히 PER만 보면 5개 종목 가운데 가장 고평가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삼성중공업이 수익 대비 비싸보이는 이유는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한 실적에 있었다. 2분기 매출은 3조2307억원, 영업이익은 3250억원으로 시장의 기대치(3조2767억원, 3744억원)와 비교하면 각각

13.2%, 7.5% 낮은 수준이었다.

다만 환율을 현재 수준에 고정하는 환헤지를 고수하는 삼성중공업은 동종사에 비해 최근의 고환율에 따른 수혜를 상대적으로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년부터는 1300원대 후반 이상의 환율로 수주한 24년 이후 수주물량의 인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증권가가 삼성중공업을 현재의 PER이 아니라 미래의 자기자본이익률(ROE)로 평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나증권은 수익성 정상화가 본격화되는 2027년 삼성중공업의 예상 ROE를 24.13%로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정 PBR을



따는AI로 생성한 ‘삼성중공업, 조선주 재평가의 마지막 퍼즐’ 관련 이미지.

13.65배를 적용했다. 현재 실적만 보면 비싸지만, 미래의 이익 체력을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저평가돼 있다는 논리가 담겨 있다.

주목할 점은 외국인 투자자의 시선도 증권가와 방향이 같다는 점이다. 삼성중공업의 외국인 지분율은 직전거래일 기준 28.98%로 HD한국조선해양(33.21%)에

이어 조선 주요 5개 종목 가운데 두 번째로 높다. 또한 지난달 25일부터 4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갔다.

변용진 iM증권 연구원은 “최근 미국의 육상 데이터센터가 지역주민 반대 등으로 잇따라 추진이 중단되고 있어 이에 따른 반작용으로 해상 부유식 데이터센터(FDC)의 사업화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라면서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MASG A·마스가) 등 기존에 기대되던 한국 조선업의 신사업보다 오히려 빠르고 현실적인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결국 밸류에이션 갭을 메울 마지막 퍼즐은 부유식 데이터센터(FDC)와 미국 합정 수주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CPSP)실주 전례가 있는 만큼 실제 수주 성과가 관건이다.

/김아영 수습기자 ay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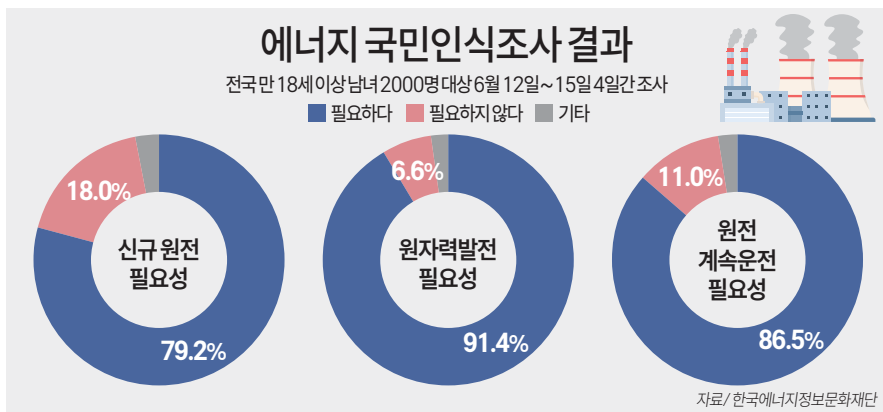
국민 79%, 신규 원전 건설 공감… “안전성 확보가 최우선”

에너지정보문화재단 인식조사 결과
원전 전력수급계획 반영 83% 공감
지역 인근 건설 찬성 56%, 과반 넘겨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이를 국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원전 정책 결정과 지역 수용성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으로 는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30일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에 따르면, 여론조사 전문기관 코리아리서치인 터내셔널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2일~15일까지 진행한 ‘2026년 2분기 에너지 국민인식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는 조사원 면접전화조사(CATI)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0.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규 원전 건설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79.2%,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원전을 반영해야 한다는 응



답은 82.9%에 달했다. 국내 원자력발전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91.4%가 긍정했고,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86.5%)과 향후 원자력발전 비중 확대(71.2%)에 대해서도 과반을 훌쩍 넘는 찬성표가 집계됐다. 원전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83.8%)과 원전 수출 확대 필요성(88.7%)에 대해서도 높은 공감대를 보였다.

원전 입지에 대한 지역 수용성도 점진적인 개선세를 나타냈다. 거주지 또는 근무지 인근에 원전을 건설하는 데 찬성한

다는 응답은 56.3%로 과반을 넘겼다. 다만 전체 원전 필요성(91.4%)이나 신규 건설 필요성(79.2%)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해, 입지 선정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신중한 기류가 유지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원전 정책의 절대적 기준은 ‘안전’이었다. 원자력 정책 결정 시 최우선 고려 요소로 응답자의 42.2%가 ‘원전의 안전성’을 선택해 전력공급 안정성(17.7%), 환경·생태계 영향(14.5%) 등을 크게 앞섰다. 원자력 분야의 가장 시급

한 해결 과제 역시 ‘원전 안전성 확보’(28.3%)가 1위로 꼽혔으며, 사용후핵연료 관리(17.9%)가 뒤를 이었다. 원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도 ‘안전성 강화’(48.3%)가 가장 많았고, 이어 ‘투명한 정보 공개 및 소통’(18.1%), 지역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14.0%), 지역 주민 지원 확대(11.0%) 순이었다.

차세대 원전 기술로 꼽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인지도 간 격차’가 뚜렷하게 관측됐다. SMR 개발 및 활용 필요성에는 86.8%가 동의했으나, SMR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39.7%에 그쳐 국민 눈높이에 맞춘 체계적인 정보 제공과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원자력발전 확대가 국내 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83.8%로 나타났고, 원전 수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88.7%로 국민 다수는 원전 산업의 긍정적 효과와 함께 해외 원전시장 진출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 원전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방안으로는 ‘원자력 기술 경쟁력 강화’(40.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주수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조사를 통해 원자력발전의 역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지속적인 정책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SMR 등 차세대 원전에 대해서도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단은 에너지 환경 변화에 대한 국민 여론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통계와 데이터,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과 협력해 분기별로 에너지 테마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앞서 1분기에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방향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는 응답자의 82.0%가 긍정 답변을 내놨다. 이어 3분기에는 탄소중립·전력망, 4분기에는 에너지 정책을 주제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K-원전, ‘전력수요 폭증’ 美 시장 공략

KNA, 한·미 원전 협력 세미나 개최
국내 원전 기업의 전주기 역량 소개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KNA)가 AI 산업 성장 등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한 미국 시장에서 국내 원전 기업들의 공급망 진출 및 파트너십 확대를 위한 장을 마련했다.

KNA는 지난 27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달러스 힐튼 아나톨에서 ‘한-미 원전산업 협력 세미나(KORUS Nuclear Industry Partnership Seminar)’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북미 최대 원자력 행사인 ‘NECX 2026’ 기간 중 열렸다.

행사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에너지빌리티 등 팀코리아와 국내 중소·중견기업과 미국의 주요 원전 사업자, 엔지니어링사, 주정부 기관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 측 발표 세션에서는 원전 프로젝트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는 지난 27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달러스 힐튼 아나톨에서 ‘한-미 원전산업 협력 세미나’를 개최했다. /KNA

트 관리부터 설계·엔지니어링, 주기기 제조, 정비, 핵연료, 사이버보안에 이르는 전주기 공급망 역량과 글로벌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종합적으로 소개됐다.

미국 측 연사로 나선 글렌 데이비스 전 버지니아주 에너지부 국장과 칼 코 전 미국 에너지부(DOE) 장관 비서실장 등은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맞춰 풍부한 건설 경

험과 탄탄한 공급망을 갖춘 한국 원전 업계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평가했다.

KNA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미국 원전 산업계와의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내 원전 기업들의 미국 프로젝트 및 공급망 참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글로벌 3대 크루즈 선사 부산항 집결

부산항만공사, 내년 127항차 입항

부산항만공사가 3대 국제 크루즈 선사와 만나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부산 기항 노선을 늘리기로 뜻을 모았다.

공사는 이달 하순 미국 마이애미를 찾아, MSC크루즈 미주법인, 로얄캐리비안 그룹, 노르웨이자이안크루즈라인홀딩스 관계자들과 중장기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부산항 입항 확대, 준모항·모항 활성화, 크루즈터미널 운영 및 인프라 개선 등에 대해 논의했다.

면담을 통해 총 127항차의 입항을 확정했다. 이는 올해 87항차보다 40항차(46%) 증가한 규모다.

MSC크루즈는 올해 23항차에서 내년 37항차로 부산항 입항을 늘린다. 특히 그룹의 럭셔리 브랜드 ‘익스플로라 저니’(Explora Journeys)를 부산항에 신규 유치하고 기존 ‘MSC 벨리시마’(Bellissima)호 등의 럭셔리 크루즈의 입항을 추진한다.

로얄캐리비안도 올해 54항차에서 내년

74항차로 부산항 입항을 확대한다. 특히 그룹의 럭셔리 브랜드 ‘실버세’(Silverse a)는 11항차에서 26항차로 크게 증가하며 올해 없었던 부산 오버나잇 일정도 2027년 3항차를 신규로 도입한다.

노르웨이자이안크루즈라인도 2026년 10항차에서 2027년 16항차로 확대한다. 부산항만공사는 국내 최초 24시간 터미널 운영을 통해 부산 오버나잇을 실시한 그룹 내 ‘오세아니아 크루즈’(Oceania Cruises)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룹 내 프리미엄·럭셔리 브랜드의 항공·철도 연계 신규 상품을 논의하기로 했다.

공사는 MSC크루즈 미주법인에서 ‘셀러브리티 크루즈’(Celebrity Cruises) 사장 및 세계크루즈선사협회(CLIA) 의장을 역임한 업계 50년 경력의 릭 사소 MSC Cruises 미주법인 회장과 만났다. 로얄캐리비안 본사에서는 하이메 카스티요 부사장과, 노르웨이자이안크루즈 본사에서는 후안 카를라 수석부사장과 면담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기후부, 자연자본공시 실무 가이드 배포

국내 기업 대응 역량 확대

정부가 국내 기업들의 자연자본공시 준비와 작성을 돕기 위해 맞춤형 실무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오는 10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자연 관련 공시 지침 초안 발표를 앞두고 국내 기업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자연자본공시 안내서’와 ‘리프(LEAP) 실무 해설서’ 2종을 오는 31일부터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kbr.go.kr)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자연자본공시는 기업이 경영활동 중 발생하는 자연 관련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공개하는 제도다.

이번 자료는 “기존 사례와 결과 위주의 자료만으로는 실제 작성 방법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 공시 체계 이해부터 분석, 전략 수립, 보고서 작성까지의 전 과정을 실무자가 따라 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자연자본공시 안내서’는 국내외 공시 동향, 주요 지표, 예측 분석, 자연전환계획 수립법 등을 담았다. 함께 배포되는 ‘리프 실무 해설서’는 표준 분석 절차인 LEAP(위치 파악·진단·평가·대응) 단계별 진행법과 점검표(체크리스트), 해외·업종별 적용 사례를 수록해 활용도를 높였다.

이재는 기후부 자연보전국장은 “자연자본공시는 자연과 기업 경영이 서로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자연과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관리하는 출발점”이라며 “우리 기업이 국제 공시 논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운용사 선정

삼성자산·미래에셋·우리은행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제2기 전담운용기관에 삼성자산운용·미래에셋증권이, 주거래은행에 우리은행이 각각 재선정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의 제2기 전담운용기관과 주거래은행 선정을 완료했다며, 다음달 1일부터 제2기 사업을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운용사는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증권, 주거래금융회사는 우리은행이다. 이들 기관은 지난 2022년 푸른씨앗 출범부터 공단과 함께 기금을 운용해 왔다. 이번 재선정을 통해 그동안 축적한 운용 경험과 전문성을 제2기에도 이어간다.

/세종=김연세 기자

코트라, 산업 ODA로 기업 해외진출 지원

KIAT 업무 코트리로 이관

산업통상부의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산업 ODA)’ 관리기관이 기존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로 이관된다. 코트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산업부는 31일자로 KIAT와 코트라 간 ‘산업 ODA 업무 인계인수 협약’을 체결하고 내달 1일부터 코트라의 산업 ODA 사업을 관리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이관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맞춰 86개국 132개 해외 무역관을 보유한 코트라의 해외 현장 밀착형 지원 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추진됐

다.

산업 ODA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산업 발전을 돕는 동시에 우리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상생형 사업이다. 2012년부터 35개국에 총 5931억 원(103개 과제)이 투입됐으며, 올해 예산은 312억 원 규모다. 그간 사업을 통해 약 2280억 원의 국산 기자재 수출과 센터 운영을 통한 2330억 원 규모의 후속수출 성과를 거뒀다.

코트라는 기존에 관리해 오던 재정경제부의 ODA 사업(KSP, EIPP)에 더해 산업 ODA까지 연계·운영함으로써 사업 간 시너지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자원 부족과의 공급망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2025
JIWOO
Production
Presents

Musical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Welcome to the Hyunam-Dong Bookshop



2025.03.01 ~ OPENRUN 루미나아트홀

원작 황보름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클레이하우스

총괄 프로듀서 황기현 | 각색·연출 박예슬 | 작곡·음악감독 김은지 | 안무감독 윤이나 | 무대디자인 주미영
조명디자인 손정은 | 음향디자인 안형록 | 무대제작 드림아트컴퍼니(주) | 제작PD 박민서

주최·제작 극단지우 기획 (주)지우컴퍼니 (주)제이엘컬처 협찬 yes24 사모계절 티켓문의 NOL ticket 공연문의 02.332.4902

강진군, 수자원 확보·홍수 대응 위한 ‘병영천댐’ 건설 추진

기존 흙골저수지 제방 아래 건설
저수용량 102만t, 총사업비 965억
관계기관 협력 등에 행정력 집중

전남 강진 수자원의 새 전환점을 마련할 획기적인 신규댐 ‘병영천댐’이 건설된다.

강진군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병영천댐 건설사업이 신규댐 건설계획에 최종 선정되면서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와 홍수 대응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군은 지난 2023년부터 병영천댐 건설의 필요성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를 이어왔다. 기후변화로 가뭄과 집중호우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수자원을 확보하고 홍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물 관리 시설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병영천댐은 기존 흙골저수지 제방 아래에 새로운 댐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저수용량 120만 톤, 홍수조절용량 57만 톤 규



지난해 8월 29일 강진원 강진군수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함께 현장을 방문한 모습. /강진군

모다. 총사업비는 965억원이다. 사업비 부담률은 국비 90%와 지방비 10%이다.

댐이 건설되면 안정적인 용수를 확보하고 하천 유지용수를 공급할 수 있다. 또한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홍수조절을 통해 하천 주변 지역의 침수 피해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적으로 인구 변화와 지역개발에

다른 물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군민에게 안정적인 물 공급 체계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업 선정을 통해 물 부족에 대한 우려를 줄이는 것은 물론,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과 홍수 등 물 관련 재해에 대한 대응 역량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특히 안정적인 수자원을 확보함으로써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강진군은 사업 선정에 그치지 않고 정부와 전라남도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댐 건설에 따른 지역 발전 효과가 강진군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주변 지역 발전 방안과 주민 지원 방안 등을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병영천댐 건설사업의 최종 선정은 지역의 미래를 고민하며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노력의 결실”이라며 “물은 군민의 삶을 지키고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원인 만큼, 병영천댐을 통해 용수를 확보하고 홍수 대응 능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지역의 미래 발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전남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경남도, 추석 앞두고 도로정비 실시

457개 노선, 6689km 대상
집중호우 피해구간 등 정비

경남도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여름철 집중 호우로 파손되거나 기능이 떨어진 도로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추계 도로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비 대상은 지방도·위임국도·시도·군도 등 457개 노선 6689km로, 경남도 도로관리사업소와 18개 시군이 함께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8월 집중 호우에 따른 도로 파손 부위와 배수로 정비 ▲교량·터널 기능 확보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비탈면 정비 ▲도로표지 정비 ▲불법 점용 시설물 정리와 풀베기 등이다.

특히 지난 15~18일 집중 호우로 거제·통영 등에서 발생한 피해 구간은 응급 복구에 그치지 않고 추가 피해 가능성을 점검하며 태풍에 대비해 배수시설과 비탈면, 낙석·산사태 취약구간도 함께 살핀다. 귀성객이 느는 명절 특성을 감안해 간선도로와 마을 진입로 주변 제초·청소, 불법 적치물 정리도 병행한다.



국지도60호선 생림~상동 간 포장도 정비 현장. /경남도

경남도는 정비가 끝나는 10월 14~20일 자체 점검·평가로 시군별 실태를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은 연내 보완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앞서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2월 5일까지 진행한 2025년 도로정비 평가에서 현장·행정 12개 항목 모두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아 지방도 최우수, 위임국도 우수 기관으로 전국 1위에 올랐다. 산청 제철전지기도 산청·함양·거창 지역 출동 거리를 줄이기 위해 도비 10억원을 들여 조성됐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경남대-메가존, 지역 AX 전환 이끈다

‘경남피지컬AX연구협력센터’ 개소

경남대학교가 지난 28일 한미미래관 4층 심연홀에서 메가존과 ‘경남피지컬AX연구협력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센터는 제조 현장의 설비와 공정, 데이터를 인공지능과 연결해 산업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AX 기술을 연구하고 실증하는 공간이다. 경남대는 이번 센터 개소를 계기로 지역의 인공지능 전환을 이끄는 대학으로서 제조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학생과 재직자가 함께 참여하는 현장형 AI 교육 기반을 넓힐 계획이다.

센터는 한미관 2층 273㎡ 규모로 조성

됐으며 메가존클라우드와 알짜케이, 아이미크 등 3개 기업의 전문 인력 20여 명이 상주해 경남대 교수진, 학생들과 함께 제조 AI 연구 개발을 수행한다. 센터는 앞서 경남대와 메가존이 함께 운영해 온 초거대제조AI글로벌공동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한 것이다.

개소식은 경남도의 글로벌 피지컬 AX 중심지 전략과 창원 제조 산업의 디지털 전환 흐름에 맞춰 마련됐다. 경남대가 보유한 제조 AX 교육·연구 기반에 메가존의 AI·클라우드 기술력이 더해지면서 제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술 적용과 인재 양성이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한국마사회 본사 ‘영천 이전’ 공식 제안

경북도-영천시, 말산업 육성 논의

경북도와 영천시가 한국마사회 본사의 영천 이전을 공식 제안했다. 양급회 경북도 경제부지사와 김병삼 영천시장 은 지난 28일 우회중 한국마사회 회장을 만나 한국마사회 본사 영천 이전 제안서’를 전달하고 랫츠런파크 영천과 연계한 말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경북도와 영천시는 영천이 랫츠런파크를 보유한 한국마사회의 핵심 사업 현장이자 대구·경북권 교통망과 산업 기반을 활용할 수 있는 본사 이전 최적지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본사와 랫츠런파크 영천을 연계

해 사업 현장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을 핵심 논리로 제시했다. 본사 이전을 계기로 말산업 관련 기업과 연구·교육기관, 전문인력양성시설, 관광·레저 콘텐츠를 집적해 영천을 말산업 혁신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본사 이전 시에는 이전 부지와 행정절차를 비롯해 임직원의 주거·교육·교통·의료·문화생활을 포함한 종합적인 정주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랫츠런파크 영천을 말산업과 관광·문화·레저가 결합된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한국마사회와의 협력사업도 지속 발굴한다. /영천(경북)=김준한 기자 kih9@



포항시는 28일 라한호텔 그랜드홀에서 ‘2026년 포항시 유망강소기업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포항시, 유망강소기업 10곳 선정

신규 10곳, 재지정 4곳 지정서 수여

포항시는 지난 28일 라한호텔 그랜드홀에서 ‘2026년 포항시 유망강소기업 지정서 수여식’을 열고 신규 10개 기업과 재지정 4개 기업에 지정서를 수여했다. 행사에는 박용선 포항시장, 김철수 포항시의회의장, 송경창 포항테크노파크원장, 박제서 포항유망강소기업협의회장과 기업 대표·임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우수유망강소기업에는 ㈜스트라드비전과 ㈜디에스텍 2개 사, 유망강소기업에는 힐팩(주), ㈜이프, ㈜캐럿먼트, ㈜국민기계, ㈜시민제과, ㈜다원화학 등 6개사가 선정됐다. 예비유망강소기업에는 ㈜이뮤노바이옴과 ㈜포스코어 등 2개

사가 신규 지정됐다.

지난해 ‘포항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경도공업, ㈜드림텍, ㈜성화이앤씨, ㈜휴먼텍 등 4개사도 재지정됐다. 재지정 기업은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등 기업 지원 시책의 수혜자격을 유지한다.

시는 기업별 성장전략 수립과 시장 확대를 지원하고, 지정 기업에 기술개발, 사업화, 공정·경영혁신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3년간 사업화 자금은 예비유망강소기업 1000만원~최대 2000만원, 유망강소기업 1000만원~최대 3000만원, 우수유망강소기업 1000만원~최대 5000만원이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지역 이모저모

경주시

국가대표 도시매력도 대상

경주시는 ‘2026 글로벌 도시브랜드 대상’에서 국가대표 도시매력도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경주시는 신라 천년의 역사와 유네스코 세계유산, 황리단길 등 역사·관광자원을 활용해 도시 매력을 높인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로 국제행사 운영 역량과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입증한 점도 호평받았다.

시는 문화유산 보존·활용과 사계절 축제, 야간관광 콘텐츠 확충, 관광·교통·숙박 기반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경북교육청

전국기능경기대회 종합우승

경북교육청은 지난 22일부터 28일까지 인천 기계공업고등학교 등 인천광역시 일원 6개 경기장에서 열린 ‘2026 인천광역시 제61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경북 선수단이 7년 연속 종합우승을 차지하고, 교육청 소속 학생선수단은 9년 연속 학생부 우승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경북 선수단은 46개 직종에 130명이 출전해 금메달 13개, 은메달 13개, 동메달 9개, 우수 13개, 장려 31개 등 40개 직종에서 총 79개 입상 성과를 거뒀다. 합산 점수는 1,991점으로 전국 시도 가운데 정상에 올랐다. /경북=김준한 기자

진도군

K-먹거리 산업화 모델 구축

진도군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연구원과 손잡고, 진도군 케이(K)-먹거리 산업화와 지역상생 모형(모델) 구축에 나선다.

진도군은 지난 28일 진도군청에서 이재각 진도군수와 조주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중소벤처기업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진도의 지역 여건과 농수산업 현황을 함께 살펴보고, 지역의 특성을 살린 새로운 사업과 정책을 발굴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계획이다. /진도(전남광주)=이대호 기자 eogh7505@

전남광주시

섬 여행하면 50% 환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2026 섬 방문의 해’를 맞아 반값여행 관광 상품을 출시했다. 전남광주특별시는 8개 시군 16개 섬을 여행하면 관광경비의 50%를 돌려주는 ‘전남광주 섬 반값여행 상품’을 오는 11월 4일까지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반값여행을 할 수 있는 섬은 목포 달리도·외달도, 여수 하화도·사도·거문도·개도·금오도, 고흥 죽섬·연호도, 보성 장도, 강진 가우도, 영광 송이도, 진도 관매도, 신안 흑산도·반월바지도·증도 등이다. /전남광주=양수영 기자

유통·식품업계 마케팅 진화

“10만원 이하 출근룩 골라줘”... ‘발견형·대화형’ 쇼핑 혁신

이커머스업계, 플랫폼 연동 확대
AI·영상 등 새로운 소비행태 대응
경쟁구도 ‘구매접점 확보’ 이동

국내 이커머스 업계가 유튜브와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외부 플랫폼과의 연동을 확대하며 새로운 쇼핑 접점 확보에 나서고 있다. 소비자가 포털이나 쇼핑물 앱을 직접 찾아 상품을 검색하는 기존의 ‘목적형 쇼핑’에서 벗어나, 영상 콘텐츠를 시청하거나 AI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상품을 발견하고 구매하는 소비 행태가 확산되면서다.

30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국내 주요 이커머스 업체들은 유튜브 쇼핑 제휴 확대와 함께 챗GPT 전용 앱 출시, 상품 데이터 연동 등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 소비자를 자사 앱으로 끌어들이는데 집중했던 기존 전략에서 한발 더 나아가, 소비자가 머무는 외부 플랫폼에 직접 상품 탐색과 구매 경로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판매 접점을 넓히는 모습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영상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유튜브 쇼핑이다. 유튜브 쇼핑



최근 전통적인 배너 광고 등을 넘어 영상 콘텐츠와 생성형 AI를 통한 상품 탐색이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발견형·대화형 커머스’가 유통업계의 화두로 떠올랐다. /ChatGPT 생성 이미지

제휴 프로그램은 크리에이터가 동영상, 쇼츠, 라이브 스트리밍 등에 상품을 태그하면 시청자가 별도의 검색 과정 없이 구매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다. 콘텐츠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상품을 발견하고 구매까지 이어지는 이른바 ‘발견형 커머스’다.

초기 쿠팡, 올리브영, 에이블리, 지그재그 등 이커머스·버티컬 플랫폼을 중심으로 형성됐던 제휴 생태계는 최근 홈쇼핑과 라이프스타일 분야로 빠르게 확장

되고 있다. 유튜브는 지난 26일 롯데홈쇼핑, GS샵, 현대홈쇼핑 등 홈쇼핑 3사를 신규 파트너로 추가했다. 이에 앞서 컬리와 쿠팡, 오늘의집, W컨셉, 알리익스프레스 등도 잇따라 제휴에 합류했다.

CJ온스타일은 단순 상품 연동을 넘어 전담 조직을 두고 크리에이터에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등 자사 앱과 유튜브를 잇는 두 트랙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유튜브의 국내 쇼핑 거래액이 2024년 1000억원에서 지난해

5000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1조 4000억원 수준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영상 콘텐츠가 상품을 우연히 발견하는 ‘발견형 쇼핑’의 접점을 넓히고 있다면 챗GPT 등 생성형 AI는 소비자의 질문과 맥락을 기반으로 상품을 제안하는 ‘대화형 쇼핑’의 새로운 창구로 떠오르고 있다. 소비자가 “10만원 이하 출근룩 골라줘”, “여름 원피스 추천해줘”처럼 용도와 예산, 취향 등을 자연어로 입력하면 AI가 조건에 맞는 상품을 탐색해 제안하는 방식이다.

이커머스 업체들도 생성형 AI를 새로운 상품 유입 경로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무신사는 자체 개발한 인터페이스 ‘무신사 MCP’를 적용한 챗GPT 전용 앱을 출시했다. LF몰과 롯데홈쇼핑도 챗GPT 전용 앱을 선보이며 AI 대화에서 상품 탐색으로 이어지는 쇼핑 환경 구축에 나섰다.

CJ온스타일은 AI 검색 결과에서 자사 상품의 노출을 높이는 생성형엔진최적화(GEO) 전략을 도입하고 챗GPT에 약 60만개 상품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했

다. 롯데백화점도 외국인 관광객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여행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자사 점포와 콘텐츠가 노출될 수 있도록 자체 AI 솔루션을 활용한 GEO 마케팅에 나섰다.

업계가 유튜브와 생성형 AI 등 외부 플랫폼에 잇따라 진출하는 배경에는 소비자의 쇼핑 여정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검색과 자사 앱 중심이던 상품 탐색 경로가 영상과 소셜미디어, 생성형 AI 등으로 분산되면서 자사 플랫폼 안에 고객을 묶어두는 ‘록인(Lock-in)’만으로는 신규 고객을 확보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커머스 업계의 경쟁 역시 자사 앱으로 얼마나 많은 소비자를 불러들이느냐에서 소비자가 머무는 플랫폼 곳곳에 얼마나 많은 구매 접점을 확보하느냐로 확장되는 양상이다. 유튜브를 통한 ‘발견형 커머스’와 생성형 AI를 활용한 ‘대화형 커머스’는 형태는 다르지만 자사 앱 밖에서 잠재 고객을 발굴하고 구매로 연결한다는 점에서 같은 전략의 연장선에 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metro

K-팝스타·게임 IP 등 협업 활발... 구매과정 ‘경험·즐거움’ 극대화

굿즈·현장 이벤트 등 콘텐츠 확장
단순한 제품구매 이상 가치 제공

식품업계가 K-팝 스타와 인기 게임 IP(지식재산권)를 마케팅 전면에 내세우며 쓸쓸한 흥행 재미를 보고 있다. 스타를 향한 애정과 게임을 즐기는 몰입감이 실제 제품 구매로 번지는 구조다. 업계는 단순한 얼굴마담식 모델 기용을 넘어 소장용 굿즈, 디지털 보상, 오프라인 체험을 묶어 팬덤의 주머니를 열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고물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콘크리트 소비층’ 확보 전략이 깔려 있다. 팬덤은 가격 저항선이 낮고 구매 행동이 신속해 불황기 실적을 받쳐주는 확실한 버팀목이 된다. 여기에 팬들이 자발적으로 SNS에 인증샷을 올리고 커뮤니티로 퍼나르면서, 막

대한 광고비를 들이지 않고도 폭발적인 바이럴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이 기업들에게 강력한 유인책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아이돌 팬덤을 타깃으로 한 마케팅은 즉각적인 판매 증가로 확인된다. 동아오츠카는 걸그룹 ‘리센느’를 나란드 사이다 모델로 내세운 뒤 한 달간 주요 판매 채널 실적이 1년 전보다 48% 올랐다. 아들이 출연한 사이다 및 피자 브랜드의 영상 콘텐츠는 유튜브에서 수천만 건의 재생 수를 기록하며 화제성을 입증했다.

세계 시장을 겨냥한 홍보도 성과를 내고 있다. 하이트진로가 방탄소년단(BTS) 뷔와 펼친 진로(JINRO) 캠페인은 해외 소비자들의 호응 속에 관련 콘텐츠 누적 조회수가 5억 회를 돌파했다. 현지

팬들이 광고판을 촬영해 공유하거나 제품 구매를 인증하는 등 자발적인 홍보 활동이 이어진 영향이다.

팬들의 소장 욕구를 겨냥한 기획상품도 잇따르고 있다. 동원F&B가 BTS 진의 이미지를 압혀 선보인 참치 선물세트는 누적 4만 세트 이상 팔렸고, 메가MG C커피가 K-팝 콘서트 티켓을 응모권으로 제시한 프로모션에는 60만 명에 달하는 인원이 몰리기도 했다.

게임 IP와의 만남 역시 식품업계의 핵심 흥행 카드로 떠올랐다. 제품을 사면 게임 안에서 쓸 수 있는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충성도 높은 게이머들을 소비자로 포섭하는 전략이다.

도미노피자는 RPG ‘명조: 워더링 웨이브’와 손잡고 자사 앱 주문 고객에게 스페셜 블록과 포토카드, 쿠폰을 묶은

세트를 판매하고 있다. 라면과 과자 등 일반 식품으로도 이 같은 흐름이 확산해 팔도(리니지 클래식), 롯데웰푸드(메이플스토리), 농심(배틀그라운드) 등이 쿠폰이나 한정판 기획 상품을 선보였다.

이같은 협업은 자사 앱 유입과 오프라인 고객 접점 확대라는 선순환을 만들어낸다. GS25가 최근 2년간 들어온 게임 IP 상품은 누적 2000만 개 넘게 판매됐으며, 맘스터치의 로스트아크 세트 역시 사흘 만에 준비된 물량 상당수가 동났다. 최근에는 팝업스토어나 게임 대회 개최 등 현장 이벤트를 결합해 브랜드 경험을 더 깊게 전하는 추세다.

업계 관계자는 “구매 과정에서의 ‘경험’과 ‘즐거움’을 중시하는 Z세대에게 식품 구매는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굿즈를 수집하고 게임 내 보

상을 획득하며 팝업스토어 등 오프라인 공간을 방문하는 유희적 활동의 연장선”이라며 “상품의 맛이나 가격을 넘어 ‘내가 좋아하는 대상과의 접점’이 핵심적인 구매 결정 기준이 된 셈이다. 앞으로도 제품 구매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는 협업 전략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IP 협업이 일회성 반짝 흥행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브랜드 고유의 경쟁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모델이나 캐릭터의 화제성에만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단기 매출은 올릴 수 있어도 계약 종료 후 고객이 쉽게 이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협업을 계기로 유입된 신규 팬덤을 자사 브랜드의 장기적인 단골로 안착시킬 수 있는 고유의 제품력과 서비스 정교화가 향후 과제로 꼽힌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현대백 “진석기시대 구이세트’ 선물하세요”

유튜버·셰프 협업 선물세트 판매

현대백화점은 유명 유튜버와 셰프 등과 함께 개발한 추석 선물세트를 판매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제철 수산물로 직접 잡아 요리하는 콘텐츠를 선보이는 유튜버 ‘진석기시대’와 협업해 가시 없는 간편 구이 세트를 개발했다. 고등어와 삼치, 임연수어 등을 활용한 생선구이로 구성했으며 가시를 제거하고 한 차례 구운 뒤 개별 포장해 전자레인지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일식 셰프 장호준과 협업한 ‘명품 계우 통전복죽 세트’도 선보인다. 국내산 전복 내장인 ‘계우’를 참기름에 볶아 만든 전복죽으로, 전복 한 마리를 큼직하게 썰어 넣



‘가시 없는 간편 고등어구이 세트’. /현대백화점그룹

었다.

중식 셰프 정지선이 추천하는 ‘몽지람 수공반 대사판’과 ‘몽지람 수공반’도 판매한다. 몽지람은 중국 백주 브랜드로, ‘몽지람 수공반 대사판’은 현대백화점 단독 상품으로 마련했다. /김서현 기자

롯데마트, 인니 도·소매 매장 식품 중심 재편

홀세일 푸드마켓·그로서리 특화 전략

롯데마트가 인도네시아에서 도매와 소매 매장을 각각 식품 중심으로 재편하며 현지 사업 확대에 나선다.

롯데마트는 지난 2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끌라빠가딩점의 도매·소매 매장을 전면 개편해 재단장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7월 소매 매장 뿌라무까점과 도매 매장 세랑점을 재단장한 데 이어 두 달간 3개 점포를 개편했다.

끌라빠가딩점은 도매와 소매 매장이 한 건물 같은 층에서 운영되는 복합 매장으로, 2011년 개점 이후 15년 만에 전면 재단장을 진행했다. 도매 매장은 즉석조리 매장 ‘요리하다 키친’ 등 K푸드 콘텐츠를

결합한 ‘홀세일 푸드마켓’으로, 소매 매장은 먹거리 중심의 ‘그로서리 특화매장’으로 각각 재구성했다.

롯데마트에 따르면 2024년 1월 간다리아시티점을 첫 소매 ‘그로서리 특화매장’으로 개편한 이후 2년 7개월간 재단장한 인도네시아 도·소매 점포의 매출은 이전 같은 기간보다 18%, 방문객 수는 64% 증가했다.

롯데마트는 2008년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현재 교통 거점을 중심으로 도매 매장 36개점, 대도시를 중심으로 소매 매장 11개점을 운영하고 있다. 도매점은 ‘홀세일 푸드마켓’, 소매점은 ‘그로서리 특화매장’으로 개편하는 전략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G마켓, 당일배송 확대

내일 ‘트레이더스 당일배송관’ 오픈

G마켓은 내달 1일 ‘트레이더스 당일배송관’을 열고 트레이더스의 다양한 장보기 상품을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오픈으로 트레이더스의 육류·과일 등 신선식품을 비롯해 대용량 가공식품과 간편식, 생수·생활용품 등을 G마켓에서 주문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트레이더스가 주력으로 판매하는 대용량 상품이 G마켓 장보기 상품군에 추가된다. 신선식품뿐 아니라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대용량 식품과 생활필수품도 온라인으로 주문해 당일 배송받을 수 있다.

매주 트레이더스 인기 상품 4종을 선정해 ‘오픈 특가’ 행사도 진행한다.

/김서현 기자

빌려 쓰다 통째로 샀다… 해외 IP로 새 판 짜는 K-패션

이랜드, ‘뉴발란스’ 韓 법인 설립에
신규 유통 파트너로 ‘호카’ 지정
F&F, ‘디스커버리’ 상표권 매입
로열티 부담 덜고 소유권 확보

국내 패션기업들의 해외 브랜드 활용 전략이 진화하고 있다. 글로벌 본사의 국내 직접 진출 및 유통권 회수에 맞서 새로운 유통 파트너십 구축부터 상표권 인수, IP 재가공을 통한 역수출까지, 다양한 형태의 전략이 발현되고 있다.

◆ 본사 직진출에 신규 브랜드 확보

글로벌 브랜드 본사들의 한국 시장 직접 진출이 잇따르면서 기존 국내 전개사들도 계약 종료 리스크에 대비한 새로운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이랜드는 2008년 ‘뉴발란스’의 국내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이후 지난해 기준 연 매출 1조 2000억원대 규모의 대형 브랜드로 키워냈다. 이랜드는 지난해 뉴발란스 본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2030년까지 연장하며 키즈 라인 등 일부 사업은 계속 전개하기로 했다. 다만 뉴발란스 미국 본사가 한국 법인(뉴발란스코리아)을 설립해 내년 1월부터 성인 라인 사업에 직접 참여하기로 합의



코닥어패럴 중국 상하이 장위안 매장.

/하이라이트브랜드

따라, 이랜드는 신규 브랜드를 확보하며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나서고 있다.

미국 글로벌 신발·의류 기업 데커스는 글로벌 트레이딩 및 러닝화 브랜드 ‘호카’의 한국내 신규 공식 유통 파트너로 이랜드를 지정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기존 총판과의 계약을 해지한 데커스는 이랜드가 보유한 유통·상품 기획 및 마케팅 역량을 바탕으로 호카의 국내 전개사로 선정했다는 입장이다. 이랜드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규 프리미엄 스포츠 브랜드를 선제적으로 라인업에 추가함으로써

매출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랜드 관계자는 “국내 스포츠 패션 시장에서 글로벌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성장시킨 경험과 역량을 갖춘 만큼, 데커스와 함께 호카를 한국 시장에 안착시키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로열티 끊고 영구 자산화

계약 해지 리스크와 로열티 부담을 덜기 위해 상표권 자체를 사들이는 영구 자산화 전략을 펼치는 경우도 있다.

지난 13일 F&F는 기존에 라이선스 방식으로 전개하던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

의 글로벌 상표권을 8000만 달러(약 1132억원)에 직접 매입했다고 공시했다. 디스커버리는 올해 2분기 기준 국내 매출 632억원을 올리며 F&F 국내 브랜드 전체 매출의 약 34%를 차지했다. 아울러 중국 내 매장 수가 1년 만에 13개에서 27개로 늘어나는 등 해외에서도 세를 넓히는 추세다.

이번 인수로 F&F는 매년 본사에 지급하던 로열티 부담을 덜어낸 동시에, 아시아 주요 지역 중심 독자적 브랜드 소유권을 확보했다. 라이선스 입찰인에서 IP 소유주로 전환함에 따라 해외 시장에 직접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하이라이트브랜드, 非패션 ‘코닥’ 국내 맞춤 의류 브랜드로 구현

데네이처홀딩스 ‘내셔널지오그래픽’ 다류 채널을 K-패션으로 재해석

◆ 비패션 IP 재해석·글로벌 역수출

기획력과 디자인으로 IP의 가치를 재창출한 뒤 역으로 해외 시장에 들고 나가는 기업도 늘고 있다. 하이라이트브랜드는 필름 카메라 브랜드인 ‘코닥’ 등 비패션 분야의 해외 IP를 발굴해 국내 소비자

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의류 브랜드로 구현했다.

디자인, 마케팅, 상품 기획을 주도한 하이라이트브랜드는 코닥 어패럴의 매출을 2020년 톤칭 첫해 132억원에서 지난해 1044억원까지 늘렸다. 현재 국내 122개 오프라인 매장을 구축한 데 이어 해외에서도 25개 매장을 확보하며 IP 상품을 역진출시키고 있다.

데네이처홀딩스는 월트디즈니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다큐멘터리 채널 브랜드인 ‘내셔널지오그래픽’을 패션용품 및 의류로 재해석했다. 지난달에는 국가유산청과의 협업으로 ‘K-헤리티지’ 컬렉션을 선보이는 등 한국 특유의 스트리트 감성을 더해 브랜딩하고 있다. 내셔널지오그래픽은 올해 상반기 매출 1652억9600만원을 기록해 전체 매출액(2083억4800만원)의 79.3%를 차지했다. 국내 실적을 바탕으로 해외 직영 매장으로 늘리고 있다. 대만 14개점, 홍콩 7개점, 중국 22개점(대리상 포함) 등 중화권을 중심으로 국내에서 몸집을 키운 해외 IP를 글로벌 시장으로 역수출하고 있다.

/김수정 수습기자

kcrystal@metroseoul.co.kr



metro

닥스골프, 가을 신제품 ‘5주 조기투입’ 성과

지난해 보다 매출 27% 늘어
디자인 테마 ‘런던 아키텍처’
실제 상품 착용 시점 기준 제안

닥스골프가 가을 신제품 조기 투입으로
늦더위 수요를 잡았다.

LF는 닥스골프의 가을·겨울(FW) 신제품 출시 시기를 지난해보다 5주 앞당긴 결과, 해당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닥스골프 가을 신제품은 소재와 두께는 가볍게 유지하면서 컬러와 디자인으로 계절감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브릭, 페일 민트, 페일 핑크, 그레이 등 가을 색감을 적용하고 ▲냉감 소재 반팔 니트 티셔츠 ▲홀겅 경량 점퍼 ▲경량 맨투맨 ▲데님 팬츠 등을 선보였다.

디자인 테마로는 ‘런던 아키텍처’를 내



닥스골프 2026 FW 화보.

/LF

세웠다. 런던 건축물의 구조와 선·면의 균형감에서 착안한 기하학적 패턴을 스웨터와 티셔츠 등에 적용했다. 여름철 호응을

얻은 플리츠 제품군도 이어간다. 여름보다 섬세하고 정제된 텍스처로 입체감을 살리고 셔츠형 점퍼·긴팔 카라 아이템 등도 함께 선보였다.

LF는 조기 출시 전략이 판매 실적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LF는 쿠션지 맨투맨과 건축적 패턴의 풀오버, 격자무늬 경량 점퍼 등이 판매를 이끌었고 ‘에센셜 데님 팬츠’는 출시 2주 만에 판매율이 높아 리오더와 추가 컬러 출시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LF 닥스골프 관계자는 “달력상의 계절보다 고객이 실제로 제품을 입기 시작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아이템을 제안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가을 분위기는 충분히 느끼면서도 늦더위부터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는 제품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정 수습기자

JW중외제약, ‘보광글루타이드’ 임상 신청

국내 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진행

JW중외제약은 신약 후보물질 ‘보광글루타이드’의 2형 당뇨병 적응증에 대한 임상3상시험계획(IND)을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임상시험은 메트포르민과 SGLT-2억제제 병용요법으로 혈당이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국내 2형 당뇨병 환자 174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오는 2027년 1월 임상을 개시할 예정이며 2029년 2월까지 위약군 대비 보광글루타이드 병용 투여군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한다.

JW중외제약이 지난 4월 중국 간앤리 파마슈티컬스로부터 보광글루타이드 국내 독점 개발 및 상업화 권리를 확보해 연구개발에 착수했다.

보광글루타이드는 GLP-1 수용체 작용제 계열 신약후보물질이다. 췌장의 GLP

-1 수용체에 작용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혈당을 조절하는 기전을 갖췄다. 또 음식물의 위 배출을 지연시켜 비만, 2형 당뇨병 등 대사질환 전반에서 활용될 전망이다.

특히 현재 비만·당뇨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주 1회 투여 방식의 GLP-1 계열 제제들과 달리 ‘2주 1회’ 투여하는 과하주사 제형으로 개발되고 있다. 장기간 혈당을 관리해야 하는 당뇨 환자들의 연간 주사 횟수를 52회에서 26회로 줄일 수 있다.

JW중외제약은 이번 2형 당뇨병 임상 3상을 비롯해 대사질환 분야 파이프라인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이번 3상 임상은 기존 병용요법으로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2형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보광글루타이드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맥도날드 동해 지키는 군 장병에 ‘행복의 버거 서프라이즈’

맥도날드가 동해 안보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을 찾아 버거와 함께 깜짝 선물을 전했다.

한국맥도날드는 동해안 안보를 맡고 있는 육군 제23경비여단을 방문해 ‘행복의 버거 서프라이즈’ 행사를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맥도날드 크루 복장으로 변신한 가족과 친구가 군 장병들에게 직접 ‘행복의 버거’를 전달했다. 현장을 담은 TV 광고와 유튜브 영상은 지난 27일 공개했다.

‘행복의 버거’는 지역사회를 위해 애쓰는 이들과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식사를 전하는 한국맥도날드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김수정 수습기자

LG생건 ‘피지오겔’, 올리브영 행사제품 선택

9월 올영픽… 대용량·특가 적용

LG생활건강이 CJ올리브영에서 더마톨로지컬 뷰티 브랜드 ‘피지오겔’을 9월 올영픽 제품으로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

브랜드 대표 제품을 대용량으로 기획하고 특가로 적용한다. 환절기를 맞아 독보적인 피부 보습 솔루션을 담은 제품들로 소비자 공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DMT 페이스 크림(사진)의 경우 차별화된 성분 설계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피부 지질 유사 성분을 배합한 바이옴믹 기술을 통해 필요한 성분만을 담았다. 바이옴믹 기술 미적용 제품과 비교 시, 피부 장벽 손상 방지율이 21.5%3) 높게 나타나는 등 우수한 장벽 보호 효과를 입증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마이크로 인퓨전 공법’으로 제품력을 끌어올렸다. 해당 공법은 특수 진공 믹서로 장시간 정밀하게 원료를 혼합해 입자를 미세하고 균일하게 구현한다. 고품질은 물론 편안한 사용감까지 완성하는 제조 방식이다. 하루를 온전히 공정에 투자해야 할 만큼 섬세한 관리가 요구되는 공법으로 알려졌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피지오겔만의 독보적인 R&D 기술력이 완성한 보습 장벽 케어를 더 많은 고객들이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GC녹십자, 변이·신종 독감 백신개발 박차

佛 바이오 기업 오시백스와 ‘맞손’

GC녹십자가 매년 변이하는 독감 바이러스의 한계를 극복할 차세대 프리미엄 독감백신 개발에 나선다. 기존 B세포 항체 반응에 T세포 면역을 더한 이중 면역 기전으로 글로벌 독감백신 시장의 판도를 바꾸겠다는 전략이다.

GC녹십자는 프랑스 백신 개발 전문 바이오 기업 오시백스와 다양한 독감 바이러스에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예방 효과를 제공하는 차세대 독감백신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력은 GC녹십자의 독감백신 ‘지씨플루’와 오시백스의 A형 독감백신 후보물질 ‘OVX836’을 단일 주사 제형으로

결합해 프리미엄 복합 백신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둔다.

지씨플루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사전적격성평가(PQ) 인증을 획득한 표준 백신이다. 바이러스 표면 항원 헤마글루티닌(HA)을 인식해 B세포 항체 반응을 유도한다. 다만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 표면 항원 형태가 달라지면 기존 백신의 예방 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

한편 오시백스의 ‘OVX836’은 변이율이 낮은 바이러스 내부 핵단백질의 재조합 단백질 백신 후보물질로 T세포 면역을 일으킨다. 양사는 상호 보완적인 두 기전을 활용하면 유행성 변이부터 신종바이러스까지 폭넓은 영역에서 장기적으로 적용 가능한 예방 요법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청하 기자

미래AX공학관, 연구 혁신의 시작이 되다

미래 AX 공학관에서 펼쳐질 초격차 연구 혁신,
중앙대학교는 인류의 내일을 바꿀 '메타 밸류(Meta-Value)'를 창출합니다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첨단 교육 플랫폼과 함께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당신의 위대한 첫걸음을 지원합니다.

■ 지식 창출로 미래를 선도

- 2026학년도 상반기 정부재정지원사업 1,927억 수주
- BK21사업 18개, 선도연구센터[ERC, SRC] 5개, ICT연구센터 4개, 중점연구소 2개 유치

■ 첨단기술 기반 학생 성장 지원

- 교육부 첨단분야 정원 증원 승인 학과
(일반대학원 - AI학과/융합보안학과 등 10개 학과, 첨단영상대학원 - 메타버스융합학과)
- 창의ICT공과대학 지능형반도체공학과 신설

■ AX(AI 전환) 혁신을 선도하는 연구 생태계

- 반도체 클린룸과 GPU 서버실을 갖춘 '미래 AX 공학관' 건립
- 사람·학문·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집단 융합 연구 공유 플랫폼' 구축



미래 AX 공학관 착공(2026)





코스맥스, 인니 첫 화장품학과 신설 참여

코스맥스가 인도네시아 최초의 대학 화장품학과 신설에 참여하며 현지 R&D 인재 육성을 본격화한다. 코스맥스는 인도네시아 서부 자바 소재 파자자란 대학교(UNPAD) 약학대학 내 화장품학 학사과정 개설에 산업계 대표로 참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인도네시아 최초의 화장품 특화 학부 과정으로, 피부·모발 기초 연구부터 제형 개발, 안전성·효능 평가까지 화장품 연구개발 전 과정을 다룬다.

/코스맥스



다인어스, 가족돌봄청소년 체험활동 지원

다인어스그룹의 대학생 봉사단 '다인어스'가 가족돌봄 청소년(영케어러)들에게 특별한 여름방학을 선물하고 있다. 다인어스그룹은 다인어스가 이달 초부터 가족돌봄 청소년을 위한 여름방학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가족돌봄청소년들의 정서적 휴식과 사회적 교류를 돕기 위해 마련한 이번 활동은 서울, 대전, 대구 등에서 각각 진행했다.

/다인어스그룹 다인어스



대웅제약, 월드클래스 성과 우수기업 선정

대웅제약은 지난 28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6 월드클래스 세르파 시책기관 네트워크' 행사에서 월드클래스 성과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산업통상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대웅제약은 2012년 국내 제약업계 최초로 '월드클래스 300(WC-300)' 기업에 오르며 연구개발(R&D)을 지속하고 글로벌 시장을 꾸준히 개척해 왔다는 평가다. 실제로 WC-300 선정 7년 만인 2019년 대웅제약은 별도 기준 연매출 1조원을 처음 돌파했다.

/대웅제약



KB국민은행, 청년 IT 인재 7기 배출

KB국민은행은 지난 28일 청년 IT 인재 양성 프로그램 'KB 잇츠 유어 라이프(IT's Your Life)' 7기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KB 잇츠 유어 라이프'는 청년들의 SW·AI 역량을 강화하고 IT분야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22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KB국민은행의 대표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현재까지 1000명 이상의 청년이 교육과정에 참여했으며, 수료생들은 국내 우수 기업에 취업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KB국민은행

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전보 △통신자원정책과장 심규열 △사이버침해대응과장 김단호

부음 ▲임윤자씨 별세, 류필선(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씨 모친상= 29일, 서울직접자병원 장례식장 특실1호, 발인 31일 서울시립소화원. 02-2002-8444 ▲정성종(향년 93세)씨 별세, 정규완(현대해상 기획관리부장)씨 부친상= 30일, 제주부민장례식장 10빈소(제주시 연북로 378(도남동)), 발인 9월 1일 오전 07시, (064) 742-5000.

한진그룹, 故 조양호 뜻 이어 유소년 탁구 꿈 키운다

제5회 일우배 전국탁구대회 개최
유소년 500여명 참가해 기량 겨뤄
고인 뜻 이어 유망주 육성·탁구 지원

한진그룹이 대한민국 탁구의 격을 높인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선대회장의 정신을 이어간다.

조 선대회장은 지난 2008년 대한탁구협회 회장에 취임한 이후 12년간 재임하며 대한민국 탁구와 스포츠 발전을 위해 헌신했다. 이를 기리기 위해 한진그룹은 조 선대회장의 호를 딴 일우(一宇)배 전국탁구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30일 한진그룹에 따르면 '제5회 일우배 전국탁구대회'가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개최됐다. 일우배 전국탁구대회는 대한탁구협회가 주최·주관하고 한진그룹



故 조양호 한진그룹 선대회장이 지난 2008년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개최된 불우이웃돕기 자선탁구대회에서 참가 선수와 경기를 하고 있다.

/한진그룹

이 후원한다. 올해 대회에는 초등학교 1~6학년 남녀 유소년 선수 500여 명이 참가해 기량을 겨뤘다. 일우배 전국탁구대회는 지난 2019년 작고한 조양호 선대회장을 추모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2022년 처음 개최됐으며, 올해

로 5회째를 맞았다. 고인의 탁구 발전에 대한 헌신과 업적을 기리고, 유소년 선수들이 탁구를 통해 꿈을 키우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조양호 선대회장은 2008년 대한탁구협회 회장, 2009년 아시아탁구연맹

기보, 현대모비스 협력사에 5000억 보증

하나은행과 상생 협약 체결

기술보증기금이 현대모비스, 하나은행과 협력기업 경쟁력 지원에 나선다. 이와 별도로 신한·우리·하나은행과 손잡고 차세대 유니콘을 대상으로 금융을 추가 지원한다.

30일 기보에 따르면 현대모비스, 하나은행과 '대·중소 상생 동반성장 지원'을 위한 포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현대모비스와 하나은행의 특별출연금, 보증료지원금을 기반으로 최대 50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공급한다. 기보는 협약보증을 통해 대상기업에 ▲보증비용 상향(85%→100%, 3년간) ▲보증료 감면(0.4%p↓, 3년간) 등의 우대혜택을 제

/김승호 기자 bada@



지난 27일 서울 강남구 현대모비스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오른쪽부터)권형택 기보 이사장, 이규석 현대모비스 대표, 이호성 하나은행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보

공하고, 현대모비스와 하나은행은 1년간 보증료를 전액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보의 기술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신기술사업자 중 현대모비스가 추천하는 협력기업 등이다.

포스코 비온드, 공학 지식으로 교육 나눔

3개월간 국내외 교육봉사 진행

포스코대학생 봉사단 '비온드' 19기가 공학 지식을 활용한 교육 나눔으로 국내외 미래세대와 소통했다.

단원들은 직접 기획·제작한 체험형 콘텐츠를 바탕으로 국내외봉사활동을 펼쳤다.

포스코는 비온드 19기가 지난 3개월간 국내외 교육 봉사를 진행하고 지난 28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활동발표회를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비온드는 '여기, 바로 지금을 넘어'라는 의미로 더 멀리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은 포스코 대학생 봉사단이다.

올해 비온드 19기는 여름방학 집중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단원들은 지난 6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공학교육과 메이커 활동(다양한 도구를 활용해 장치 제작)에 참여하며 공학역량을 키우고, 이후 공학체험 실습키트 제작과 연계한 국내 교육봉사와 베트남 해외봉사 등을 진행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

현대이지웰, 소상공인 상생 복지 강화

입점 소상공인 150곳 대상

현대백화점그룹 계열사 현대이지웰이 복지물에 입점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가을 휴가비를 지원한다. 현대이지웰은 총 2000만원 규모의 가을 휴가비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현대이지웰 복지물에 입점한 소상공인 약 150곳이다.

지원 신청은 3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현대이지웰 협력사 전용 게시판에

서 받는다. 선정 결과는 다음달 11일 발표한다. 선정된 소상공인은 오는 11월까지 한국관광공사의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전용 온라인몰 '휴가샵'에서 국내 여행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현대이지웰은 1인당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현대이지웰은 소상공인 대상 복지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31일에는 소상공인연합회 회원 70만명을 대상으로 한 상생형 복지물을 개설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유한양행, 몽골 산림 복원 협력 강화

유엔 총회서 복원 성과 공유

유한양행이 지속 가능한 산림을 위한 친환경 경영을 적극 실천하며 글로벌 민간 협력을 강화한다.

유한양행은 몽골에서 열린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제17차 당사국총회'의 비즈니스 포 랜드 행사에 참여해 몽골 산림 복원 사업 현황을 공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발표는 사업 추진 첫 해에 거둔 성과다.

유한양행은 지난해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몽골 산림청, 현지 비영리 조직 빌리언 트리 등과 업무협약

을 체결하고 사막화 방지, 산불 피해지 복원 등에 착수했다. 특히 올해는 15헥타르 규모의 산불 피해 구역에 묘목 3만 7500그루를 식재했다. 유한양행과 사업 파트너 기관 관계자들은 몽골 바트스메르숨의 복원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식재한 묘목 상태를 점검하는 등 관리 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참여형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몽골 바트스메르숨 청소년을 대상으로 '숲 그림그리기 대회'를 진행했다. 학생 700여 명이 참가해 환경 인식을 확산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시몬스, 방배동에 프리미엄 갤러리 오픈

약 90평 규모 프리미엄 매장

시몬스가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시몬스 갤러리 방배점'을 새로 열었다.

30일 시몬스 측에 따르면 시몬스 갤러리 방배점은 방배 카페거리, 예술의전당, 서래마을 등 주요 문화·라이프 스타일 공간은 물론 디에이치 방배, 래미안 원페들라, 방배 롯데캐슬 로제, 방배 6편한세상, 방배 자이 등 대규모 주거 단지와 인접해 가족 단위는 물론 혼수를 준비하는 예비부부 등 다양한 고객층의 유입이 기대된다.

약 90평 규모의 시몬스 갤러리 방배



시몬스 갤러리 방배점의 '테크니컬 갤러리'.

점은 '네이버후드 럭셔리'라는 새로운 콘셉트를 적용해 친숙한 주거 공간에 프리미엄 공간을 조성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중기중앙회, 노란우산 이모티콘 무료 배포

내달 1일 오후 2시부터 배포

중소기업중앙회가 노란우산 캐릭터 꿈이와 산이를 활용한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9월 1일 무료로 배포한다.

30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노란우산 가입자인 소기업·소상공인을 상징하며 별처럼 빛나는 내일을 꿈꾸는 '꿈이'와 그 곁에서 든든한 우산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상징인 '산이'의 캐릭터를 활용하여 감사, 사랑, 응원, 추석인사 등 일상의 감정을 표현하는 16종의

움직이는 이모티콘을 선보인다.

이모티콘은 1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 5만명에게 무료 배포하며 누구나 카카오톡에서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채널을 추가하면 노란우산 캐릭터 이모티콘을 내려받아 30일간 사용할 수 있다.

중기중앙회 이창호 공제사업단장은 "가족·지인과 함께 이모티콘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노란우산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삼육대학교
SAHMYOOK UNIVERSITY

120th
1906-2026
삼육대학교 120주년

www.syu.ac.kr



사람을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시대는 변해도 교육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1906년 개교 이래 120년의 흔들림 없는 발걸음으로
삼육대학교는 사람을 깨우고 세상을 밝혀왔습니다.

2027학년도
수시모집 안내

원서접수일 : 2026.9.7.(월) 10:00 ~ 9.11.(금) 18:00
원서접수처 : 진학어플라이(www.jinhakapply.com)
입학처 문의 : 02-3399-3377~9
세부사항은 입학처 홈페이지(ipsi.syu.ac.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떼인 돈 안 갚으면 무조건 사기죄?



김 대 희 변호사의
슬기로운 법 생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상대방을 사기로 고소하겠다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온다. 실제로 수사기관에 접수되는 사기 고소 중 차용금 사기 사건이 적지 않다. 그런데 막상 고소를 해도 혐의없음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고소인으로서의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돈을 갚지 않는 것과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한다(형법 제347조). 여기서 기망행위란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알았다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사정을 알리지 않는 부작위도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차용금 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판단의 기준 시점이다. 판례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를 돈을 빌릴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그 후 사업이 어려워지는 등



/유투이미지

사정이 변경되어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 갚지 못한 결과가 아무리 중하다라도 그 결과만으로 거슬러 올라가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대역자가 채무자의 어려운 사정을 어느 정도 알면서도 그 위험을 감수하고 돈을 빌려준 경우라면 더욱 그러하다.

물론 채무자가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고 자백하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편취의 범의는 차용 전후의 재산상태, 소득, 자금의 사용처, 변제를 위한 노력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게 된다. 이미 변제기가 지난 다른 채무가 다수 존재하거나, 아무런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면 차용 당시 이미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존재하지 않는 담보를 제공하겠다고 하거나 타인의 재산을 자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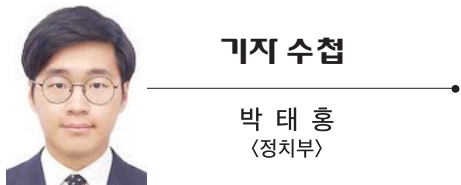
의 것처럼 내세운 경우도 마찬가지다.

자금의 용도를 속인 경우도 문제된다. 사업자금이라고 빌려간 돈을 실제로는 도박이나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경우, 대역자가 그러한 용도를 알았다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관계에 있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된다. 이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변제능력이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나중에 돈을 모두 갚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가 없어지지는 아니한다.

고소를 준비한다면 차용 당시의 사정을 밝힐 수 있는 자료에 집중해야 한다. 차용증과 계좌내역은 물론, 돈을 빌리면서 어떠한 말을 했는지가 드러나는 문자메시지나 대화내용이 핵심적인 증거가 된다. 반면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정만을 적어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

한편 사기죄로 처벌이 이뤄진다고 해서 빌려준 돈이 저절로 돌아오는 것도 아니다. 물론, 형사고소는 임의변제를 심리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 될 수는 있다. 기본적으로 형사절차는 처벌을 위한 절차일 뿐이므로,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한다. 결국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담보를 수취하거나 돈을 빌려주는 시점에 상대방의 자력과 용도를 확인하고, 변제방법과 계획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다. /법무법인 바른

‘골든타임’ 정기국회, 구체적 입법목표 밝혀야



김 지 수 협
박 태 홍
(정처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가 이재명 정부 집권 2년차 성공을 뒷받침할 ‘골든타임’이라며 입법 성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보여주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굵직한 쟁점 입법 시간 2~3개 외엔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 때 무엇을 하려는 지와 닿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민석 당 대표 집권 전후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할 메가특구특별법, 정부의 1·29 부동산 공급 대책을 뒷받침할 후속조치 법안 등이 정기국회 주요 처리 법안으로 눈에 띄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에서 100일간 어떠한 분야의 입법을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을 내놓지 않았다.

권철승 정책위의장의 정기국회 입법과제 발표를 듣고 언론에게 브리핑하러 온 원내대변인도 ‘주요 입법 과제가 무엇이나’는 질문에 두루뭉술하게 답했고, 마지막 브리핑 때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한 필요 입법을 5~6개 밝히는 정도에 그쳤다.

일례로 윤석열 정부 때였던 2024년 정기국회를 앞두고 실시한 민주당 워크숍에서 당 정책위원회는 경제살리기법 102개, 나라바르게우기법 27개, 미래예비법 24개, 인구대비법 12개 등 우선 입법과제 165개를 선정했다. 이때 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정책위의장은 진성준 의원이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년차인 2025년 정기국회를 앞두고 실시한 워크숍에선 국민체감 정책 입법화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민생 입법 102건, 진짜 성장을 위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뒷받침을 위한 성장 법안 39건,

검찰·언론·사법 등 개혁 입법 완수를 위한 개혁 법안 44건, 재해·재난·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안전 법안 39건이 법안 별 주요 요지와 함께 소개됐다.

당시 당 대표는 정청래 전 대표, 정책위의장은 한정에 사무총장이었다. 이 가운데 민생 입법으로 소개된 은행 대출 가산금리에 법적비용을 제외하거나 일정비율 이상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 등은 당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했다.

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원하는 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거대야당이었던 민주당이 그토록 원하던 ‘집권여당’이 됐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반복 행사할 일도 없다. 지도부가 이번 정기국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만큼 처리하고 싶은 입법도 각 분야 별로 다양할텐데, 이를 언론이나 대중에게 알리는 방법은 오히려 후퇴한 것 같아 아쉽다. /pth7285@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31일 (음 7월 19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주변 상황을 잘 살피도록 하세요. **60년생** 스스로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72년생** 주변 사람을 잘 단속하세요. **84년생** 행동을 조심하고 겸손해야 할 시기입니다.

49년생 일을 그냥 적당하게 처리하지 마세요. **61년생** 두 번 생각해서 행동하세요. **73년생** 여자의 말을 잘 따르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85년생** 서북쪽으로 가면 아주 귀한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50년생 법은 시민들이 지키라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62년생** 건강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니 유의하세요. **74년생** 지킬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86년생** 타인과의 마찰을 조심하세요.

51년생 생각보다 피해가 클 수 있습니다. **63년생** 주변인들로부터 원치 않는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75년생** 항상 자신을 잘하도록 하세요. **87년생** 주위를 면밀히 잘 살피도록 하세요.

52년생 사소한 일이라고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64년생** 이성과 좋은 만남이 있을 수 있는 날입니다. **76년생** 일시적 성공과 실패에 연연하지 마세요. **88년생** 좋은 일은 다시 올 것입니다.

53년생 뿌린 만큼 얻을 수 있습니다. **65년생** 열심히 노력하는 시기입니다. **77년생** 지혜를 필요로 하는 시기입니다. **89년생** 이상형을 아직도 못 만났으면 오늘 한번 도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54년생 겁 모르고 행동하면 길하지 못하니 차분히 행동하세요. **66년생** 아랫사람을 대우해 주세요. **78년생** 위험이 근처에 있습니다. **90년생** 덕을 충분히 베풀지 않으면 반발이 있을 것입니다.

55년생 세상을 혼자서만 살 수 없습니다. **67년생** 동료와 공동으로 일을 시작하는 것이 매우 길한 시기입니다. **79년생** 좋은 아랫사람을 구하면 조금은 힘이 될 것입니다. **91년생** 애정운이 길합니다.

56년생 금전운은 다소 불리합니다. **68년생** 질병과 운전, 다툼을 조심해야 합니다. **80년생** 역효과를 부를 수 있으니 행동을 조심하도록 하세요. **92년생** 너무 조금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57년생 운만 믿고 행동하면 실패할 우려가 있습니다. **69년생** 노력이 성공의 길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도록 하세요. **81년생** 이동을 줄이고 근신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93년생** 동쪽이 길합니다.

58년생 상대방을 헐뜯게 되는 실수를 하지마세요. **70년생** 작은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82년생** 행동에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94년생** 사람들을 만나도 집 근처에서 만나도록 하세요.

59년생 근신하듯 생활반경 안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71년생** 많은 이동을 삼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83년생** 작은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많습니다. **95년생** 여행은 되도록 피하세요.



김상회의四季 진화타겟, 타이밍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말을 농담처럼 주고받지만 사실 이 말은 삶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할 만하다.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병법도 타이밍을 중요하게 여긴다. 36계 병법 중 하나인 진화타겟이 그렇다. 진화타겟은 불이 난 틈을 타서 약탈한다는 뜻이다. 글자만 해석하면 냉혹하게 보이지만 핵심은 약탈이 아니다. 상대방이 느슨해진 순간을 노려서 승리를 가져온다는 것이 핵심이다. 즉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전쟁터에서는 물론이고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에서의 승패는 타이밍에서 결정되는 일이 많다. 진화타겟은 바로 그 타이밍을 읽는 지혜를 강조하고 있다. 사업하는 사람에게 시장을 확장 기회는 경쟁업자가 실수하는 순간이다. 상대방이 지나친 자신감으로 긴장을 늦추는 시기에 시장을 뺏어오는 것이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은 어떤 산업이 새롭게 떠오르는지 살펴야 한다. 급성장하는 산업 분야에서 채용을 늘리는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에게도 타이밍은 똑같이 중요하다. 능력이 있어도 타이밍을 놓치면 성과를 얻기 힘들다. 능력 이상으로 중요한 게 타이밍이다. 비즈니스도 경쟁 상대가 매너리즘에 빠져 방어가 느슨해졌을 때 움직여야 한다. 그런 순간에는 크게 힘들이지 않고도 평소에는 얻기 힘든 계약을 따낼 수 있다. 진화타겟 병법은 무조건 열심히 움직이기보다 언제 움직이는 게 좋을지를 먼저 살피라고 말한다. 정면으로 부딪치면서 어려운 싸움을 벌이지 말고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순간을 찾아야 한다. 이 병법을 자기 삶에 성공적으로 접목하기 위해서는 상황을 예리하게 관찰하는 눈을 길러야 한다. 상대방이 느슨해지는 순간을 알아채는 눈이 있어야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 치열한 삶의 전쟁터에서 적은 에너지로 승리하는 슬기로운 방법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일반 일간신문, 무료>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984호	
일간 메트로경제 < 유료, 월 2만원 >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088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결합형 스도쿠

15.3판권

결란 스도쿠 110

종이 스도쿠 120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7	6	2	8	8	1	9	9
1	8	8	9	9	1	7	6
9	9	1	6	7	2	1	8
8	1	6	2	8	7	9	2
8	1	9	9	6	8	2	1
2	9	7	1	1	9	6	8
6	7	8	1	9	9	8	1
1	8	1	8	2	6	9	9
9	2	9	7	1	8	8	1

9	8	2	8	1	1	9	6	7
1	7	1	8	9	6	2	9	8
8	6	9	2	7	9	8	1	1
7	1	9	1	6	9	8	2	8
8	8	1	9	2	7	1	9	6
2	9	6	1	8	8	1	7	9
9	9	8	7	1	8	6	1	2
1	1	7	6	8	2	9	8	9
6	2	8	9	1	7	8	1	1

지역인재 2982명 선발… 수도권 상위권 지원 선택지 축소

〈지방 의·치·한·수·약대〉

‘역대 최대’ 5년 전보다 2.1배 ↑
호남권 956명 선발 규모 가장 커
의대 지역의사제 첫 도입도 관건

2027학년도 지방권 의·치·한·수·약대가 전체 모집인원의 60% 이상을 지역 학생으로 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학생 선발 인원은 2982명으로 5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지방 학생들의 의·치·한·수·약대 진학 기회가 넓어진 반면 수도권 최상위권 학생들은 지방 대학까지 지원 선택지가 좁아지면서 올해 수시에서 치열한 눈치작전이 예상된다.

30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7학년도 전국 지방권 74개 의·치·한·수·약대의 지역 학생 선발 인원은 298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학년도 1446명의 2.1배 수준이다.

지방권 의·치·한·수·약대 전체 모집인원에서 지역학생 선발이 차지하는 비율도 61.3%까지 높아졌다. 약대의 학부 전환이



서울 시내 의과대학 모습.

/뉴시스

완료된 2022학년도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다.

계열별로도 모든 의·치·한·수·약에서 지역학생 선발 규모가 5년 전보다 증가했다.

의대가 2022학년도 766명에서 2027학년도 1729명으로 963명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같은 기간 치대는 134명에서 296

명, 한의대는 136명에서 294명, 수의대는 89명에서 155명으로 늘었다. 약대 역시 321명에서 508명으로 증가했다. 지역학생 선발 비율은 치대와 약대를 제외한 의대·한의대·수의대에서 2022학년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권역별 지역학생 선발 규모는 호남권이 95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울경 633

명, 충청권 574명, 대구·경북권 532명, 강원권 206명, 제주권 81명 순이다. 선발 비율도 호남권이 69.3%로 가장 높았고, 부울경 67.7%, 대구·경북 58.8%, 제주 58.7%, 충청 58.2%, 강원 39.6% 순이었다.

해당 지역 일반고 수를 기준으로 단순 환산한 학교당 의·치·한·수·약 지역학생 선발 규모도 5년 전보다 크게 늘었다. 호남권이 일반고 한 곳당 평균 4.2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권 3.7명, 충청권 3.1명, 대구·경북권 2.8명, 강원권 2.4명, 부울경권 2.2명 순이었다.

지역 학생들은 지역인재전형과 함께 수도권 대학에도 지원할 수 있어 실제 학교별 의·치·한·수·약 합격 인원은 단순 환산 규모보다 많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2027학년도에는 전국 의·치·한·수·약대 109개교 가운데 74개교가 지방권에 위치해 있어 지역학생 선발 확대가 최상위권 수험생의 지원 구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의대 지역의사제 전형이 처음 도입되는

것도 변수다. 지방권 의대의 지역학생 선발 확대와 지역의사제 도입에 따른 지원자 이동이 의대뿐 아니라 치대·한의대·수의대·약대의 지원 및 합격선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지방권 학생들은 지역학생 선발 규모가 크게 늘어나 의·치·한·수·약대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 반면 수도권 학생들은 내신 최상위권을 확보하고도 대학 결정과 합격선 예측이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수도권과 지방권에 따라 최상위권 학생들의 대학 선택 전략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올해 수시에서 상위권 학생들의 치열한 눈치작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오는 9월 7일부터 시작된다. 수험생들은 9월 2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등을 토대로 최종 지원 대학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서울 교육취약학생 문화예술 격차 줄인다

서울교육청, ‘사제동행 공연봄날’
내달부터 12월까지 총 6회 운영
서울희망교실·공연봄날 연계

서울지역 교육취약학생들이 선생님과 함께 무료로 문화예술 공연을 관람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문화본부와 협력해 서울희망교실 운영 교원과 학생이 함께 문화예술을 즐기는 ‘사제동행 공연봄날’을 9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제동행 공연봄날은 서울시교육청의 교육복지 특화사업인 ‘서울희망교실’과 서울시의 학생 문화예술 공연 관람 지원사업인 ‘공연봄날’을 연계한 사업이다.

서울희망교실은 교원과 학생 간 사제

멘토링을 통해 교육취약학생의 맞춤형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공연봄날은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시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운영된다. ▲1회차: 9월 11일 오후 7시30분 ‘캔터빌의 유령’ (엠제이플래닛·390명) ▲2회차: 10월 14일 오후 5시30분 ‘시간을 파는 상점’ (극단 파랑·140명) ▲3회차: 10월 15일 오후 5시30분 ‘시간을 파는 상점’ (극단 파랑·140명) ▲4회차: 10월 21일 오후 5시30분 ‘내일은 내일에게’ (극단 파랑·140명) ▲5회차: 10월 22일 오후 5시30분 ‘내일은 내일에게’ (극단 파랑·140명) ▲6회차: 12월 1일 오후 7시30분 뮤지컬 ‘앤 ANNE’ (극단 결판·540

명) 등이다. 특히 1회차와 6회차는 서울시 공연봄날과 연계해 좌석을 지원받는 특별 공연으로 진행되고, 나머지 4회는 자체 운영한다.

서울희망교실을 운영하는 교원과 학생 약 1450명이 무료로 공연을 관람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문화본부는 사업 기획부터 운영까지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교육취약학생을 위한 공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교육취약학생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 동시에 사제 간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따뜻한 학교 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자 수선비 지원

누수·난방·전기·창호 등 긴급수선 대상

임대인이 잠적해 집 안 누수나 보일러 고장까지 스스로 감당해야 했던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이 앞으로는 서울시로부터 최대 500만원의 긴급 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범위를 세대 내부까지 확대한다.

그동안 임대인과 연락이 끊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주택 내부에 누수나 보일러 고장 등이 발생해도 기본적인 유지보수를 받기 어려웠다.

지원 대상 공사는 누수·방수, 단열, 난방·배관, 전기, 창호 등 안전 확보와 피해 복구가 시급한 공사다. 세대당 최대 500만

원 한도로 실제 공사비를 지원한다.

안전·피해복구와 관계없는 인테리어 공사나 인허가가 필요한 구조 변경 공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사의 시급성은 전문가 현장점검을 통해 판단한다.

세대 내부 수선은 해당 세대 임차인이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공공부분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체 세대의 3분의 1 이상인 주택의 대표가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서울시 주거복지과 이메일이나 방문·우편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서식은 서울주거포털과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명동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임대인이 잠적한 피해주택의 주거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고 전세사기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경기관광공사, ‘캠핑카 DMZ’로 외국 관광객 공략

경기북부 체류관광 본격화

경기관광공사가 캠핑카와 평화누리캠핑장, DMZ 관광자원을 결합한 외국인 개별관광객 대상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에 나선다.

경기관광공사는 지난 28일 파주 평화누리캠핑장에서 캠핑카 관광상품 전문기업(썬미니캠핑앤모빌리티)과 ‘외국인 개별관광객 DMZ 체류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25년 기준 방한 외국인의 80.1%를 차지하는 개별여행객 수요를 경기북부 관광으로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 단체관광 중심의 방식에서 벗어



평화누리 캠핑장 전경

/경기관광공사

나 개별관광객의 여행 특성을 반영한 체류형 관광 모델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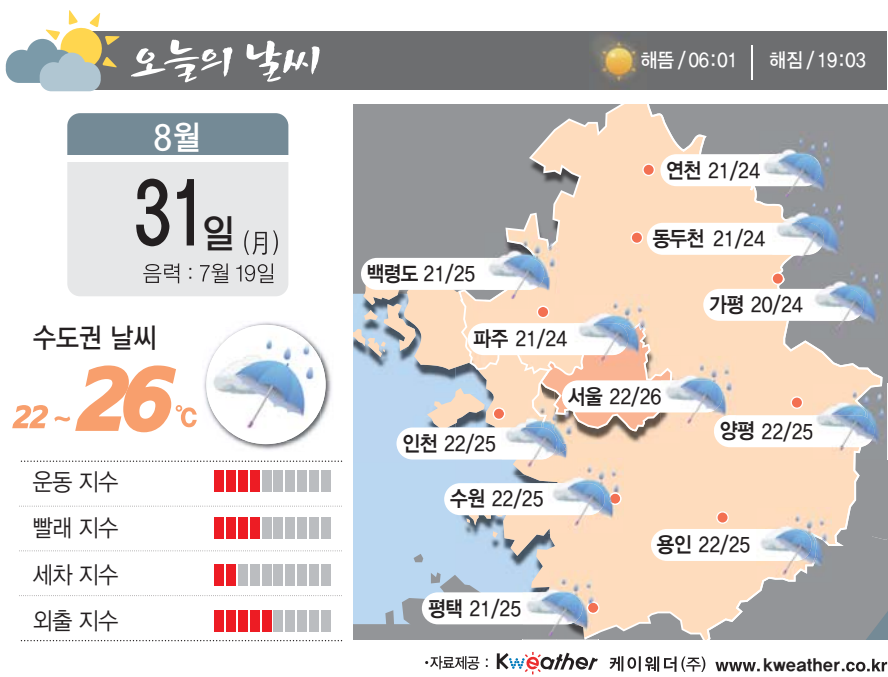
개발 상품은 외국인 관광객이 캠핑카를 이용해 평화누리캠핑장에 숙박하면서 DMZ와 경기북부 관광지를 자유롭게 둘러보는 방식이다. 평화누리캠핑장 1박과 DMZ 관광지 1곳 이상 방문을 기본으로 캠

핑카 렌트와 2박 숙박을 결합한 패키지, 여행 일정에 따라 숙박과 관광지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형 상품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협약 기업인 미니캠핑앤모빌리티는 구미주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 홍콩 등 주요 해외시장에 캠핑카 관광상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글로벌 OTA 약 60개 채널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경기관광공사가 2024년 4월부터 직영하는 평화누리캠핑장은 국내 내비게이션 목적지 검색 기준 캠핑장 분야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약 1,600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했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메트로 한줄뉴스



▲트럼프 “650억배럴 매장 베네수엘라 원유, 미국이 통제권 확보”
▲네팔·중국 홍수 사망자 750명, 3044명 실종 집계…‘2차 홍수’도 경계
/사진 뉴시스

▲中 “네팔 국경 자연댐 안정적 단계 돌입…전체 붕괴 가능성은 낮아”
▲이란, 미국에 중동사태 종전 합의 이행 촉구…“침략엔 단호히 맞설 것”

▲워시 연준 의장, 잭슨홀서 내달 금리 인상 시사…“우리에게 할 일 있어”
▲우크라이나 원전 전력 위기…지역 원자력 안전에 ‘빨간 불’



“출근룩 골라줘”
발견형·대화형
쇼핑으로 진화
L1

metro®

Life

해외 IP로
새 판 짜는
K-패션
L2



40년 철길 넘어 다음 세대로… 아이들의 ‘미래 선로’ 놓는다



새벽을 여는 사람들

용산철도고등학교
김 경 재 교장

철길 위에서 보낸 시간만 40년에 가깝다. 철도역 근무로 시작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수도권 동부본부장까지 지낸 김경재 용산철도고등학교 교장에게 철도는 직업 이상의 의미다. 삶의 대부분을 그 안에서 보냈고, 지금도 그 인연을 학생들과 이어가고 있다.

오랜 시간 철도 현장을 지켜온 그는 학생들에게 자신이 몸담은 업에 대한 ‘자기만의 철학’을 가지라고 강조한다.

김 교장은 젊은 시절 수색역에서 근무하며 무궁화호와 통일호 차량을 떼고 붙이는 ‘입환작업’을 했다. 김 교장은 “궂고 힘든 일이었지만 내가 이 작업을 빠르고 안전하게 해야 수백 명이 이 열차를 타고 일하러 가고, 가족을 만나고, 여행을 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에게도 “내가 나사 하나를 조이는 것을 아무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게 제대로 돼야 전기가 들어오고 신호가 켜지고 열차가 안전하게 움직인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며 “자기가 하는 일의 큰 그림을 보고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철도인의 핵심 가치는 ‘안전·책임·협업’이다. 수도권 동부본부장 시절 그의 관할에는 약 3500명의 직원이 근무했고 하루 1200회차량의 열차가 오갔다. 역무·운전·차량·시설·전기 등 여러 분야가 맞물려야 열차가 움직이는 현장에서 협업의 중요성을 체감했다.

김 교장은 “철도는 여러 분야가 혼연일체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철도와 함께한 39년5개월… 뒤늦게 다시 찾은 ‘선생님의 꿈’

김 교장과 학교의 인연도 깊다. 그는 지금은 사라진 국립철도고등학교의 마지막 졸업생이다. 졸업 후 가평역과 청량리역 등에서 시작해 39년5개월간 철도에 몸담았다.

한 번은 겨울철 청량리역에서 철야근무를 하던 그를 아버지가 찾아왔다. 난로를 피워 놓고 거친 현장에서 일하는 아들을 바라보던 아버지의 걱정스러운 눈빛이 마음에 남았다.

그 일을 계기로 다른 길을 고민했다. 군 복무를 마친 뒤 직장을 다니면서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에 진학했다. 교원 자격증도 땀다. 임용시험에는 합격하지 못했고 이후 철도 조직에서 승진하면서 교사의 길과는 멀어졌다.

그러나 교육에 대한 마음은 남았다. 김 교장은 “언젠가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기회는 지난해 찾아왔다. 용산철도고가



김경재 용산철도고등학교 교장.

/김승호 기자

국립철도고등학교 마지막 졸업생
입학작업 등 40년간 철도에 몸담아
아이들에게 희망 주는 교사의 길 꿈꿔
지난해, 용산철도고 교장 공모서 선발

기관사 양성해도 면허 취득 연결 안돼
코레일 고졸채용 추천인원 등 걸림돌
학교 교육-면허과정 연계 필요성 강조
취업 진입장벽 완화·기숙사 증축 과제

국내 철도산업, 해외와 연계 넓혀가야
철도기술·인재 해외진출 가능성 주목



교육부 철도산업 분야 협약형 특성화고로 지정되면서 철도산업 경험을 갖춘 교장을 공모했고, 김 교장은 서류와 프레젠테이션, 면접을 거쳐 선발됐다. 지난 2021년 현재 교명으로 출범한 이후 첫 철도업계 출신 교장이다.

학생들과의 거리를 좁히는 것도 그의 방식이다. 매일 오전 7시50분 교문에서 학생들을 맞고, 일주일에 두 차례가량 직접 급식을 배식한다. 취임 초에는 교장실 출입 안내 문구를 치우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찾아올 수 있도록 과자도 준비해줬다.

김 교장은 “중학교 때도 교장 선생님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는데 직접 배식하는 교장은 처음이라는 학생도 있었다”며 웃었다. ◆ “철도 좋아서 왔는데”… 학교와 산업 사이 끊어진 사다리

학교 생활에 익숙해질수록 김 교장의 눈에 들어온 것은 철도를 좋아해 이곳을 택한 학생들이 산업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현실적인 벽이었다.

용산철도고에는 철도운전과를 비롯해 철도기계과, 철도전기신호과, 철도전자통신과, 철도건설과, 철도운영사무과가 있다. 현장 직무와 비슷하게 학과가 구성돼 있지만 학교 교육이 자격 취득과 취업으로 곧장 이어지지는 않는다.

대표적인 것이 기관사 면허다. 철도운전과 학생들은 운전 시뮬레이터 등을 활용해 전동차 구조와 비상 상황 대응 등을 배우지만 학교가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교육시간을 면허 취득 과정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김 교장은 “기관사를 양성하는과는 있지만 정작 기관사가 될 사다리는 없다”며 “학교 교육이 사실상 선행학습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면허를 따려면 지정 교육기관에서 이론·실기 총 680시간을 다시 이수해야 한다. 김

교장은 최소 6개월과 500만원대 비용이 든다며 학교 교육과 면허 과정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취업에도 문턱이 있다. 코레일 고졸 채용은 학교장 추천을 받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학교별 추천 인원은 최대 15명이다. 한 학년이 약 160명인 용산철도고 역시 규모가 더 작은 철도계 고교와 같은 추천 인원을 적용 받는다는 게 김 교장의 설명이다.

추천 대상이 내신 상위 30%로 제한되는 점도 걸림돌로 꼽았다. 지난해에는 취업 희망자 10명을 추천해 9명이 합격했다. 김 교장은 “추천권은 15장인데 다섯 장이 남은 셈”이라고 말했다.

민간기업 취업도 쉽지 않다. 김 교장은 병역 문제 등으로 고졸 채용이 활발하지 않으며 철도차량 제작업체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교에서 철도차량을 배운 학생을 인턴 등의 방식으로 채용하고 군 복무 후 다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도 있다”며 “선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장이 남은 임기 동안 풀고 싶은 과제도 이와 맞닿아 있다. 기관사 면허 교육기관 지정과 취업 진입장벽 완화, 기숙사 증축이다.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지만 기숙사 수용 인원은 100명에 그치고 여학생은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 교장은 “이 세 가지는 교장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교육부와 국토교통부, 코레일, 민간 철도기업 등이 함께 학교 교육과 자격취업을 잇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교실에서 세계 철도로… 학생들이 달릴 ‘다음 철길’

김 교장은 국내 철도산업이 GTX 등 신규 노선과 신호기술을 발전시키는 한편, 해외와의 연계도 넓혀가야 한다고 본다.

그는 “과거 개성공단이 있을 때는 그쪽으로 기차가 갔다”며 “부산이나 목포에서 출발한 열차가 몽골까지 갈 수 있는 철도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아프리카 철도시장에도 관심을 보였다. 김 교장에 따르면 코레일은 탄자니아와 케냐 등에 진출해 있으며, 최근에는 르완다 공과대학 총장이 용산철도고를 찾아 현지 철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당시 르완다 측에서는 학생들을 보내달라는 제안도 있었다.

김 교장은 철도 기술과 인재를 함께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강조했다.

퇴직 뒤 다시 철도 한가운데로 돌아온 김 교장의 관심은 이제 학생들에게 향해 있다. 그는 “학교를 돌아다니다 보면 아이들을 보면서 울컥할 때가 있다”고 말했다. 철도와 함께한 39년5개월, 이제 그의 시선은 학생들이 달려갈 철길을 향하고 있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metroseoul.co.kr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美 육상 단거리 스타 마빈 브레이시, 중징계 2달 만에 음주운전 체포

▲올해 ‘가을야구’ 앞두고 순위 변수로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부상

/사진 뉴시스

▲롯데 자이언츠 한동희, 시즌 16홈런 기록…이대호 이후 첫 20홈런 전망

▲FC서울 송민규, 포르투갈행…“언젠가 기쁜 마음으로 FC서울 돌아오고파”

▲LAFC 손흥민, 7경기째 무득점…잇판 슈팅에도 팀은 ‘5연패’

▲높이뛰기 우상혁, 4회 연속 아시안게임 앞두고 부진…부상 여파 남은 듯